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미국이 참되고 정의를 대변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금주의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자기도 아니하고 더움지도 아니 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15)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5호 2011년 10월 15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보수주의가 보수주의다워야 2012 대선에서 승리한다!”

보수복음주의 단체, 공화당 대선주자들에 신앙과 정책 일관성 요구

[크리스천포스트 보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라고 분명한 신앙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보수 복음주의 단체들은 '2012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경선주자들에게 신앙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한마디로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을 정치 현장에서 어떠한 타협이나 절충 없이 펼쳐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보수주의 원칙으로 진보적인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고, 미국을 다시 한 번 가정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로 재건하자는 움직임이 힘차게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 단체이자 로비단체로 유명한 패밀리리서치카운실(Family Research Council)과 보수주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그리고 리버티 대학이 주축이 돼 가치를 존중하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 예비 경선주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정책과 신앙을 듣는 모임(the Values Voter Summit)을 지난 주말 워싱턴DC를 기점으로 미전역을 순회하면서 펼쳐나가고 있다.

동 단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백악관으로 입성시켜야만 미국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서는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을 정치적 타협으로 저버리는 정치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현 정부의 파괴적인 정책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복음주의 진영과 공화당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심층적으로 보도해 2012년 대선에서 종교 함수 즉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인 유권자들이 순수한 보수주의자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Values voters want pure conservatives).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보수주의의 기본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공화당 온건주의자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들은 매케인의 실책을 포함해 2008년의 의회선거에서 온건파들이 대거 제거된 데 만족을 표시하면서, 티파티 운동을 위시로 공화당이 이제 보수주의의 원칙으로

되돌아갈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 낮은 세금, 튼튼한 국가안보, 개인의 자유, 생명존중-낙태금지, 전통적 가족과 결혼의 도덕률과 같은 미국의 가치를 더욱 크게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경제 재건을 위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재집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행보가 주시되고 있다

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서 진보와 보수라는 선명한 간극으로 갈라진 미국사회를 다시 통합할 수 있다고 여긴다.

미국 정치에서 보수주의는 지난 3, 40여 년간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담론을 좌우하는 거대 패러다임으로 성장한 이데올로기이다. 공화당과 보수주의 집단은 돈(기업 후원), 정치권력(선거 승리),

정책능력(보수 싱크탱크들) 등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헤게모니를 구축해왔다. 또 이들이 내세우는 작은 정부론, 자유시장론, 세금감면론, 탈규제론, 복지제도 축소론 등은 나름대로 강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수주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쓴 이념의 파도이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목사님들 “트위터” 하세요?

CT, 미국 교회 리더들에게도
보편화된 SNS 현장 소개

말과 글로만 의사소통 할 때와는 달리 이제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활용이 필수적인 사회가 됐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SNS 기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흔히들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불리는 Twitter, Facebook, You-Tube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의 매체도 다양해졌다 일상적인 의사 전달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정보 화시대 즉 시공의 제약 없이 주고 받는 SNS의 시대가 즉 시 이루어지는 시대, 그리고 손안에 컴퓨터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이러한 때 목회, 설교,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떻게 좋고 나쁜 정보를 가릴 것이며 또 어떻게 좋은 정보를 내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SNS가 목회에 주는 유익은 없을까? 현대정보 화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정보를 나누었을까? 편지인 신앙성 경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목회서신은 목회자들에게 더 없는 목회지침서요 목회정보다.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 세상과 편지글로 정보를 나누며 소통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가?

“크리스천리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어느새 미국 교회에서 저명한 지도자들에게도 보편화된 트위터를 통한 SNS 현장을 보도해주고 있다(Twitter Reaches Out to Christian Leaders at Catalyst’s Conference).

교회는 청년들이 대거 떠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멀리하니 세상도 교회를 멀리하게 됐다. 세속화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품어줘야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소통할 때 때났던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목회자의 변신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교회에서 멀어진 청년들과의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SNS, 스마트한 디지털 미디어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스마트하게 세상과 만나야 한다.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교회는 다시금 세상을 끌어안아 더 크게 복음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한다.

(3면으로 계속)



2면

“물 가운데로 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7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7)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8면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창조과학 선교회)



16면

핍박이 늘어난 아시아교회...
노봉린 목사(하와이신학교신학교수)

2011년 추계 대부흥성회

주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김성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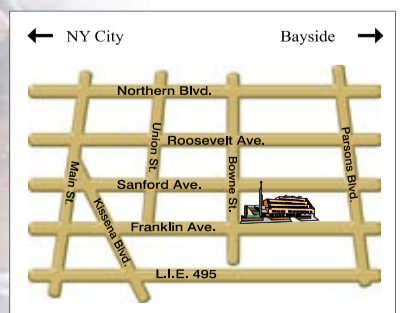
-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 미국 풀러신학대학 졸업(D. Min)
- * 총신대학교 신학박사(Th.D.)취득
- * 현 총신대학교 운영이사
- * 현 여수제일교회 담임목사

일 시 주후 2011년 10월 20일(목)- 23일(주일)

저녁집회 매일저녁 오후 8시(목-토)
새벽집회 21일(금), 22일(토) 오전 6시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0시
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4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집회도 있습니다.(금-토 저녁 8시, 주일 오후 4시)



이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담임목사 장영준
교회전화 71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시론

“장로가 적습니다(귀합니다)”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한국 기독교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 장로의 수도 적어도 십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단(예장합동)만 하더라도 2만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장로회수련회는 최근에 우리교단만 4천 명을 육박합니다. 신문광고에 보면 대형교회는 장로임직을 한꺼번에 수십 명씩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장로가 많은데 장로가 적고, 장로가

귀하다고 보는 견해는 무엇인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장로는 교회의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행 11:30/14:23/15:2,24-23/16:4/20:17/21:7/21:18, 약 5:14, 벧전 5:1/5:5, 요이, 요삼에 나오며 딤펢 5:17-19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하여 구약에서 약 100회 신약에서 60회 정도 나타나는데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두 용어를 종합해 볼 때 학식이 많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로하고 품위 있고 덕망을 겸한 자로서 가정에서나 공동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를 장로로 택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 장로는 제사장들 도와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에 참여했으며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했고, 왕을 세우는 일에도 함께 했으며, 율법과 교훈과 유언을 세웠습니다. 신약에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딤펢전 3:1-7/딤펢 1:5-9/벧전 5:1-4).

사도시대에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었는데 치리장로와 말씀강론장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 사회에 회당장로와 성읍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로는 교회의 앞장 선 일군으로서 말이나 행실, 도덕적 인격이나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경지에 있어야 하며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인정하는 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지도자나 스승도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감독하고 치리하는 일군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고 도리 오편나 도덕적 부패 방지하는 자요, 말씀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일과 성례를 시행하는 자로서 모든 면에 본이 되고 앞서가는 자이어야 함은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직이 무겁고 큰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정말 모범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면에 본이 되는 장로가 전체의 수에 비해 적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시각인지 모르겠으나 일찍이 장로의 직을 받아 봉사한 경험자로서 자책도 해보고 냉철하게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과거의 장로의 수가 아주 적을 때 장로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느낀 경험과 지금에 와서 볼 때 시대의 변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보는 자가 과거보다 순수성을 잃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본이 되고 존경하고 싶은 자의 수가 전체 수의 증가에 비해 너무나 적고 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많다고 나쁘고, 적다고 귀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다시 반복하지만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즉 영적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목사가 1만5천7백51명인데 “목사를 찾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답답한 가슴과 “장로가 적고 귀하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오늘의 시대적 감각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저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시각의 논리가 되었으면 잘 잘못된 비판적 논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해 보는 것입니다.

장로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직분다운 직분자로서의 장로가 많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장로교의 앞날에 장로 된 지도자들의 수준과 비례해지기 때문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월드, 일본 쓰나미 6개월...현지 복음의 씨앗 잉태과정 소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지난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강진과 쓰나미 재해로부터 복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했다. 그러나 피해 규모나 지역이 너무 방대하기에 사업 추진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동일본 지역의 도로, 교통, 항만 등 주요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해당 피해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 간의 협력과 긴장마저 고조될 정도이다. 미야기(宮城) 지역의 경우,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잔해는 무려 23년 동안 미야기 현에서 방출되는 쓰레기 양과 맞물릴 정도로 재건과 복구 계획은 암담하다고 현지 주민들은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실물 자산의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16.9조엔에 이르며, 향후 10년간 23조엔 규모의 복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복구 사업 규모는 지난 1995년에 발생한 한신(阪神) 대지진 복구 사업(11.6조엔)의 약 2배에 해당되는 규모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복구 예산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워낙 천문학적인 액수라 자금 조성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 기반을 복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시적인 차원 즉 동일본 지진에서 생존한 사람들이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깊은 바다”속에 빠진 것과 같이 임시 대피소에서 기약 없는 생활을 해야 하는 지진 피해자들의 한과 설움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드(World)지는 동일본 지진 현장에서 생생하게 고난과 아픔 뒤에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Deep Waters: Six month after one of the world's costliest disasters, Japanese residents strive to overcome flood damage, quake devastation, and sorrow upon sorrow)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강진 피해지역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정책의 골자를 “부흥”이란 기치로, 희망을 불

을 들면, 한신 대지진으로 인한 한만 복구에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지진피해의 복구가 실



마치 지역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쓰레기더미처럼 무겁기만 하다. 바로 여기에 교회공동체들이나

유의 자력갱생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조심스럽게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청소에서부터 심부름

향후 10년간 23조엔 규모 복구 정부계획 차질 우려 기독교 단체·교회, 구호프로그램 조성 영혼치유 활발

어 놓고 있다. 여기에 부흥청을 신설하고, 부흥 특구를 지정해 이 지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세제, 재정, 금융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이미 설정했다.

그러나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정치·대립으로 인해 관련 법률 제정,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지역의 상황을 보면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를 복구할 것인지도 놓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지역차원에서 구제적인 복구 계획의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그 진척 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

제로 완료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잃고 하루아침에 삶의 보금자리까지 쓰나미에 빼앗긴 피해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그만큼 정부나 공권력이 개인들의 상처와 피해에는 몰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동일본 경제의 인프라 구축에만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리쿠네타카타(陸前高田)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무려 1/10에 해당되는 2,300명의 주민들이 쓰나미로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체 수습과 장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잃은 상실감이 지역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지진 전에 누렸던 평범했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짐들이,

구호, 선교 단체들이 개인, 개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가족처럼 다가갈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방법들을 통해 일본 정부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영혼의 치유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토호구(東北) 지역에서는 크리스천 그룹들과 교회들로 구성된 10여개 이상의 구호 단체들이 사역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많지만 신중하게 일본 특

까지 도달이 해주면서 아픔과 상처를 토로하는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조심스럽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선교사 앤디 길버트는 마을 어귀 살아남은 나무 그늘에 천막을 치고 남편을 잃은 소위 “쓰나미 과부”들을 모아 놓고 “빙고”게임을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8(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Certificate Program
-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 MASTER of Divinity M.Div.
-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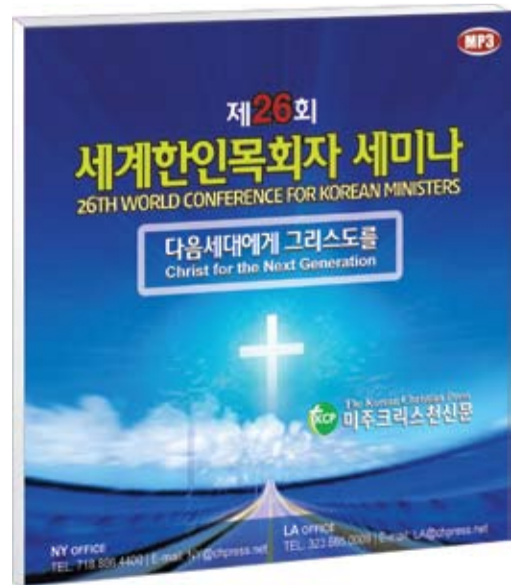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에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켜,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 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혜진,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미국을 다시 한 번 건강한 사회로!

보수복음주의 단체, 공화당 대선주자들에 신앙과 정책 일관성 요구

(1면에서 계속)
이 같은 보수주의의 힘을 반영하듯 2004년에 뉴욕타임스는 아예 보수주의 종교, 정치, 법, 기업, 언론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취재기자를 두기도 했다. 물론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보수주의 강경 노선의 재기에 경고를 한다. 어떻게 보면 전세계에 밀어닥친 경제 침체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만든 주역 중의 일부가 강경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밀리리서치카운실(FRC)은 현재 미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보수주의적 가치들을 실제 미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책이나 법안에 실현시키는 안과 밖이 동일한 유권자를 갈망하

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를 존중하는 크리스천 유권자들에게는 가난이나 낙태 그리고 동성결혼과 같은 사회정책들이 더욱 더 중요한 쟁점이기에 여기에 분명한 목소리를 가진 정치가들을 원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예비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은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기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론 폴(Ron Paul)을 제외한 모든 주자들이 분명하게 생명 존중과 동성결혼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정치가의 인격이나 신앙이 중요하지, 오바마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만을 강조하다보면 한 사람의 인격이나

보수주의자로서의 순수함을 유지할 때 정치 현장에서 진보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도 지적했듯이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주자로 나선 존 매케인 후보는 강경 또는 순수한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정책적인 입장에서 진보주의적 경향이나 인사들을 수용했던 그의 타협은 결국 복음주의적 유권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표가 분산되는 현상을 만들었다. 결론으로 FRC를 비롯한 보수 복음주의 진영은 미국 사회를 전통적이면서도 보통 평범한 가족들의 유대에 근거한 건강한 국가로 재건하고자 전력을 다하

목사님들 “트위터” 하세요?

(1면에서 계속)
따라서 트위터 하나만 가지고 세상과 스마트하게 만나는 현장을 만나보자. 지난달 기준으로 현재 트위터를 사용하는 지구촌 식구들은 무려 1억 명 이상이며 140개 문자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은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접속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구촌에서도 유명한 종교계 인사들까지도 트위터 세상에 살고 있다. 즉 로마교황청의 교황에서부터 티벳 산중의 달라이 라마까지도 트위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미국 교회에서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리더십은 주로 대형교회 담임이나 신학교 그리고 선교단체들을 이끌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는 존 파이퍼 목사이다. 그는 밥 벨(Rob Bell) 목사의 퇴진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자, 무려 21만1천명의 팔로워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 정도로 트위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 역시 트위터의 달인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영감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정보를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43만 2천명)에게 트위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2010년 포브스(Forbes)지가 선정

한 20명의 영향력 있는 트위터 유명 인사로까지 선정됐다. 그러나 팔로워 숫자뿐만 따지면 작아도 설교가인 조이스 마이어(J. Meyer)가 선두를 유지한다. 즉 43만5천명의 팔로워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사스의 조엘 오스틴 목사 역시 36만5천명의 팔로워들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일부 유명 목회자들에게는 사각지대이다. “구도자 예배”라는 커뮤니티 지향적인 월로우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아직까지는 트위터의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있고, 에드 영(Rev. Ed Young Sr.) 목사를 비롯한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한 유명 목회자들은 아직까지 엄지를 사용한 트위터 하고는 무관하다. 결론으로, SNS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네트워크 기능들은 소외된 인간관계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멀게만 느껴졌던 목회자와 교인들, 신자와 불신자 사이를 가깝게 만나게 해줌으로 크리스천들의 바른 생활과 선교의 장이 무한한 공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동 지는 전하고 있다.

경제적 쟁점보다 지도자 인격이나 신앙 신념에 초점 현 정부 파괴적 정책들 원점으로 돌릴 담대함 원해

고 있다(Conservatives win(elections) when they act like conservatives)고, 공화당 예비 경선주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 복음주의 진영의 집중포화가 계속해서 쏟아지자 최근 워싱턴 DC나 텍사스 등지로 공화당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공화당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 중 하나인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고 대권 주자로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이다. FRC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하는 의료보험 개혁, 세금 정책, 이민 정책들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정책들이라고 말한다. 즉 민주당이 표방하는 “큰 정부”의 정책들이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차기 대통령을 선정하는데 최우선관심이 되고 있

신념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보수 복음주의 진영이 ‘2012 대선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이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유권자들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 지도자의 인격이나 신앙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마디로 리더의 인격이나 신앙, 인품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정책이나 정치만을 잘하는 기능적인 리더를 원하지 않고 있다. FRC 회장인 토니 퍼킨스(T. Perkins)는 공화당 예비 경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예비주자들이 자신들의 신념이나 신앙 그리고 정책들에서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 현장에서 순수하다는 것이 승리를 가로 막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보수주의자가

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 예비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분명한 입장과 신앙을 가져야한다고 분석한다. 그래야만 2012년에는 백악관에 안락이 분명한 보수주의자를 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일 미디어에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는 경제나 재정적 쟁점들 보다는 미국사회를 이끌어 갈 차기 지도자의 인격이나 신앙, 신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한 인간의 인격이나 신앙에서 올바른 정책이나 리더십이 발현되지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공화당 예비 경선 레이스는 과연 어떠한 후보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진실되고 충실하게 대중들에게, 특히 가치를 존중하는 복음주의적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2면에서 계속)
스즈끼는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 어린 동생과 살면서 쓰나미로 완전히 파손된 집을 손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단체에서 보낸 감독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관계 공무원이 와서 피해 액수를 산출하고 정부에 보고해야만 집을 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길버트 선교사의 천막에 오게 된 이유도 단지 말동무가 없어서 말이 고깃기 때문이다. 샌디 지역에는 일본 시민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동생이교회에서 쓰나미 피해 직후부터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도움의 온정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이들은 집에 들어 닦진 쓰레기 더미와 잔해들을 청소하고, 진흙을 치워 주고 있다. 지역 사회 주민들 대부분이 나이 든 노인들로 이들 역시 도움

의 손길을 바라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의 요구 대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어느새 이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정이 드는 등 관계가 형성될 정도이다. 샌디에고 호라이즌크리스천교회에서는 “크래쉬”(CRASH=Christian Relief, Assistance, Support and Hope의 첫 자)라는 구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의약품 나눠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결론으로, 동일본 재해 현장에서 사역하는 크리스천들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담임목사 청빙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KAPC)에 소속된 시카고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헤브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헤브론 교회를 위하여 선택해 놓으신 담임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자격조건:

- 헤브론의 변치않는 비전을 승계 발전시킬 리더십과 영감있는 복음적 강해 설교의 은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실 분
- 정규 대학과 본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M, Div 이상)으로 본 교단소속 (KAPC) 이나 혹은 본 교단에 법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
- 한어 및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으로 담임 또는 부목사로 5 년이상 Full Time 목회 경험이 있는 분

제출 서류: 1차 기본 서류:

- 본인 이력서 1 부 및 사모 이력서 1 부
-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1부 (청빙 조건에 대한 의견 포함)
- 자기소개서 1부 (성장과정, 가족사항, 목회동기 및 경력사항 포함)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안수증명서 1 부
- 추천서 2부 (목회자 2 명) - 추천인 연락처 기재 (일봉 날인 필수)
- 최근 6 개월내 설교 2회분 (CD, DVD 동영상 또는 web address)
- 본인 및 가족 사진 1매 (6 개월이내)

2차 제출 서류: Email개별 통지자에 한함

- 본인 및 사모 건강 진단서 1 부
- 교단 소속 증명서

서류 제출 마감일: 2011년 11월 15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출처: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Hebron Presbyterian Church
P.O. Box 7506, Prospect Heights, IL 60070
이메일: hebronpnc@gmail.com
(E Mail 접수를 선호함, 문서는 Word Doc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헤브론 교회
청빙 위원회

제 25회 신인등단 시상식 축하모임

초대합니다

초 겨울의 마지막 앞새가 휘날리는 바닥의 낙엽은 바삭바삭 소리를 내면서 휘 날리고 있는 이때 문학가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때에 미주 크리스찬 문인 협회에서 시, 수필, 소설 신인 등단 시상식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기쁘고 즐거운 문학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회원들의 가정위에 하시는 사업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정지윤 드림

신인등단 수상자

- 시 부문 당선: 진영희(기다리면)
- 수필부문 당선: 영그레이(어머니 우리 어머니)
- 소설 특별상: 한구(천대의 사랑)
- 단편 소설: 고원상(황혼이혼)

- 일 시: 2011년 11월 7일(월) 오후 6:30
- 장 소: 만리장성 989 S. Dewey Ave. (213)384-1119
- 주 최: 미주크리스찬 문인협회
- 후 원: 미주개혁신학대학교
- 연락처: (213)249-0771 (cell)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영원한 길 아피아

지금 나는 모든 길의 여왕이라
는 유서 깊은 아피아 안티카(Appia Antica)의 길을 걷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면서 지나간 길이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삶의 고뇌

를 각인하듯 마차 바퀴 자국들로 움푹 움푹 패어 있다.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이웃과 관계를 갖는 중에 부산물로 생겨났지 싶다. 또는 다른 사람이 길

어간 발자국을 뒤쫓아가다보니 한 사람 두 사람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반짝거리는 길이 생겨나기도 했을 것이고, 그 길을 통해 삶의 슬픔과 기쁨들이 물안개처럼 퍼져나가기도 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져 좀 더 편리한 길,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속도로를 만들 기도했을 터! 그 당시 길을 만드는 열정이 불었는지 동 시대에 많은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이 모든 길의 길이는 8만km에 달하고 지선까지 합하면 15만km에 이른다니 그들은 길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열광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기원전 312년에 감찰관이었던 아피우스(Appius Claudius)는 군사 및 행정효율을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와 군사 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해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었기에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일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해야 했는지 모른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트러 앞에서 드러누웠던 사람들처럼.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를 통해 인류는 항상 큰 빛을 지게 되는지 모른다. 그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토 남단인 카푸아(Capua)까지 군사도로를 만들었다. 폭 8m에 이르는 인류가 만든 첫 번째 고속도로가 아닌지 모르겠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길을 만들기 위해 우선 땅을 깊이 파고 배수구를 만들고 물이 잘 빠지도록 모래와 자갈을 깊이 깔고 그 위 포장을 날찍한 돌(내가 대강 재어보니 가로 3-40cm, 세로 20-30cm정도 되는 판판한 돌)을 깔았다. 특히 돌을 깔 때 빗물이 잘 빠지도록 길 중앙이 약간 돌아나게 만들었다고 한다. 아직도 마차 자국이 깊게 파인 길은 줄자로 재어보니 폭 4.5m가 되었다. 마차 두 대가 비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행인들이

를 위해 양쪽에 인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길 양쪽으로는 개인적으로 만든 수많은 무덤들이 폐허가 된 채로 길손을 맞이하고 있다. 아직도 늦잠을 자다가 갑자기 방문한 손님에 맞이하기 위해 부스스한 얼굴로 여쭙질 몰라하는 표정으로 말이다. 무덤들은 다양하다. 작은 무덤에서부터 장엄한 무덤들. 그들은 죽어서도 가문의 영광을 표출하려고 몸부림쳤던 오만함을 지금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듯이 일그러진 잔해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인간의 영광은 별 것 아니라는 듯 무너져 내린 대리석 조각들은 안쓰럽기만 하다. 남아 있는 묘지명을 보니 오비디우스,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이름을 길손에게 알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처연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소나무들이 그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아직도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그 옛 길,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이는 걸어서 갔을 것이다. 이 길을, 저를는 나름대로 이 길을 지나면서 자신의 자취를 보도에 남겨 놓았다. 나는 이 길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분노로 이끌려가는 자취를 보기도 했고, 여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나폴리만의 카프리(Capri) 섬에 있는 별장으로 달려가던 황제들의 마차소리를 듣기도 했다.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들이 백마를 타고 이 길을 가면서 연도에 늘어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환호를 받던 요란한 함성을 듣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가 되어 벽간 가슴으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그들의 걸음들은 이 길 위에 편린들로 남겨졌다. 그 남겨진 선명한 자국들을 쓰다듬어 본다. 그리고 또렷한 자국을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해 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국을 남기고 있는 걸까? 또는 어떤 길을 만들어가는 삶일까?

푸/른/초/장

변영익 목사
(벤엘장로교회 담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므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므로 일명 유명한 철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물 중에 영장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하실 때 생각하므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 말고 어떤 동물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소나 개나 돼지 같은 짐승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고 행동에 옮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1. 덕을 세우는 일인가

본문(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몇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아내의 아내를 취하는 자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자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하여 믿음에 약한 자들 앞에서 마음대로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28절에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만 가하다고 제물을 먹지 말고 먹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을 때에는 내게는 가하지만 그를 위하여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즈음 세상에서는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유익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먹거리를 살 때 중국산 제품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제물을 먹든지 제물을 안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이익과 영화만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바울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나는 손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 배, 만 배로 갚아주

했습니다. 어느 날 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회사의 사장이 스티브에게 친구 사업가가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에 중요한 사람 하나를 뽑는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사장은 얼른 생각나기를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직장을 포기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청년을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요한 중역에 직분을 맡게 되어 월급도 전보다 몇 배나 더 받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이 청년과 같이 담대하고 용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생각하며 사는 신앙” 고린도전서 10장 23-33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합당치 않은 일이라면 자기를 절제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까?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이에게 유익이 있는가
바울은 본문(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잠깐 손을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까? 즉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만 유익이 되고 가하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가하며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백만장자 스티브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해야 할 급한 일이 생겨서 직원들을 모두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사장에게 말하기를 저는 주일에 교회에 중요한 말은 것이 있어서 주일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로 그 청년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시 찾기 위하여 한 달 동안 안을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허탕을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생각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므로 덕을 세우며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로스케콜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 침례신학 대학을 졸업하시고,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학위 증명서1부
3. 졸업 증명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추천서 (출신대학 교수 1분, 침례교단 목사 1부)
6. 설교 CD 1개

제출기한: 10월 31일 2011년
제출처주소: Greensboro Korean Baptist Church (GKBC)
613 Pompano DR, Greensboro, NC, 27410
기타문의: 전화 (336)508-6191, (804)891-1165
E-mail: gkbchurch@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
청빙 위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가주노회 소속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이거나, 교단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목사
- 2. 이민 목회 경력 3년 이상인 목사(부교역자 경력 포함)
- 3.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가능하신 분
- 4. 연령은 39세 -45세 사이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본인 및 가족사진 1매
- 3. 목회비전서
- 4. 목사안수증명서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 6. 목사 2인 추천서
- 7. 최근 설교 2편 (CD)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출기한:

2011년 11월 4일 (금)까지

제출하실 곳:

청빙위원회 앞
1821 Alta Vista Place, Camarillo, Ca, 93012
혹은 E-Mail : ahnfamily1821@aol.com

문의: 안동환 장로 (805) 746-1730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교육칼럼

주일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세우기(1)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녀들의 신체발달심리와 더불어 인지발달심리에 근거하여 커리큘럼(Curriculum)을 세워야 합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체계는 인간의 정신구조(인지구조)에 의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양식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동화 조절의 과정을 거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는 감각운동기로서 보기, 듣기, 움직이기, 만지기, 맛보기 등으로 발전하며, 3세에서 4세까지는 전조작기로서 자기중심적 직관적 근사한 사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에서 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로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게 됨으로 주입식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자료수집과 분석과 정리 그리고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세 이후가 되면 형식적 조작기를 거치게 됨으로 추상적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부모의 의견과 많이 부딪치게 되고 오히려 부모보다는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의존하게

이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감각으로 눈빛으로 느낌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등과 미움이 그리고 살인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며 그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족 안에서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끌어 내어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이모나 삼촌 또는 고모나 큰아빠, 작은아빠와 사촌 등 관계성을 찾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시야를 넓

한 사람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종종 병자와 친구들의 관계성을 통해 병 나옴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 즉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터득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에 대한 관계성은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에 대한 정의를 찾고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책임과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의 진의를 발견케 해야 합니다(마18:5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긴 자 즉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만남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의 삶속에서 체험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교육은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함이 시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감각이 생기기 전부터 이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립함으로 주관적

신체발달심리와 인지발달심리에 근거 교과과정 작성 정체성 심어주고 사랑과 관계성, 인격, 성품 배워야

되고 때로 돌발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상상력도 가장 풍부하고 영적인 추상력도 가장 왕성할 때가 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반항적 행동을 스포츠 등을 통해 해소해주며, 자연스럽게 영적인 체험을 갖도록 인도하면 신앙적으로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창의적인 탐구와 자기 개발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훌륭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인지발달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학습자의 세계관에 비례하여 교육과정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교육에서 인간 관계적 세계관 중심의 커리큘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함께 신앙적 체험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각운동기를 지난 교육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 복음서에서 분명히 밝힌 바대로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 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막10:13, "하나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임을 그들의 영혼에 깊

게 하나님나라의 왕자요, 공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감각적, 감성적 교재와 극적인 교육활동의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이들에게는 자기중심에서 바라보는 가족들에 대한 관계성을 발견케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때로 징계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등 신앙의 족장들을 통해 아버지의 축복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모성적 사랑을 체험케 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을 통해 어머니의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통해 받은 감성적 사랑의 체험을 끌어내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는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형제간의

허 거야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좁은 율타린 가족을 벗어나 학교에 다니면서 맨 먼저 만나는 선생님을 통해 자녀들의 타인에 대한 관계성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도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즉 다윗이나 엘리야, 바울 등을 통해 후대와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알게 하고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하여도 찾아 알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선생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동행을 통한 제자훈련이 가장 중요한 롤 모델로서 모든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들까지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도와 희생양으로서 생명을 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님으로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체험케 해야 합니다.

넷째로 관계성에 의한 세계관적 교육과정은 친구 관계입니다. 요한 복음을 통해 친구는 사랑의 대상이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깨달아 알아야 하며 이웃에 대

인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보완적 관계로서 서로 잃어버린 짝을 찾는 것임을 아담과 하와와 관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 대하여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한 쪽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적 관계임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서로 사랑의 대상이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상을 정립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 즉 주리고 목마른 자들, 병든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관계성에 의한 교육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인 구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제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귀족화 되었으며 기복과 물량주의로 빠졌는데 이 관계성을 통해 구제사역의 회복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15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갈등에 대해 역사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1948년 5월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그다음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5개 아랍 국가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리비아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은 함께 아랍 연합군을 도왔습니다. 아랍동맹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은 이스라엘의 국가설립을 부인하며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총 40만 명의 아랍 연합부대가 동원된 이 전쟁은 15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유엔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1948년 이후 현대사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랍인과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배다른 어머니를 통해 낳은 이복 형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사마리아인들이요 아랍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벌써 과거부터 이스마엘은 이삭을 시기하여 희롱하며 싸우려 하였습니다(창21:19).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이집트,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시리아는 지속적인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대 이래로 아랍인들은 주로 유목민으로서 국가의 개념 없이 중동의 광활한 지역을 이동하며 부족단위로 거주하였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아랍 국가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국경을 정하고 독립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인구 740만 중 유대인 76%, GNP 26,200달러

한편 역사적으로 아랍지역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하게 된 것은 로마제국에 의해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기원후 7세기 아랍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한 야트리브(현재 이슬람의 성지)는 바로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이 건설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무렵(주후 610년)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대량학살하고 메디나를 정복하였습니다. 메디나 정복에 이어 모하메드의 후계자들은 중동지역을 이슬람의 단일 종교로 무력 통일하였습니다. 칼로 개종시킬 수 없었던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뎀(이교도)가 되어 과도한 세금을 징수당했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회교도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회교화 된 중동아랍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번영할 때마다 반 유대감정이 들끓었습니다. 8세기에 모로코와 12세기에 북아프리카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1066년 1465년 스페인에서, 1785년 시리아에서 1805년-1830년 알제리에서 1864-1880년 모로코에서 유대인 대학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예멘은 수차례에 걸쳐 유대인 화당을 모두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시리아 예멘 등지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85만 명의 유대인들이 중동국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도주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아랍인들은 히틀러 편에 가담하여 유대인 대학살을 군사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회교전선에 따르면 성경을 따르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존중하라고 말하기도 한 반면, 유대인은 돼지이며 회교도들은 유대인을 보는 즉시 죽여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주입합니다. 유엔과 대중매체에서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말하는 평화는 크리스천과 유대인을 전멸시킨 뒤 전 인류를 회교로 무력정복 할 때만이 성취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Joy Book & Church Supply Inc.
JOY

- 성경, 찬송가
- 기독교 서적, 주석류
- 모든 종류의 종교 잡지
- 영문서적 취급
- 신에성구(강대상 일체) 미주지사
- 성가대 및 각종 가운 취급
- CD, DVD 복사기, OHP
- 성경 컴퓨터 소프트웨어
- 세광음악출판사 미주지사
- 3M, TELEX 달러
- 동시통역기
- 임직 창립 기념품 제작

인터넷서점
www.joyLA.com

조기독백화점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T.1-800-662-7282, (323)766-8793
F. (323)766-8796

뉴욕조이서적(전 한국서점)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T.1-800-662-7282 (718)762-1200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칼라간(KALAGAN)



Guif) 연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칼라간 족 대부분 따가키울로 칼라간(TAGAKILO

필리핀의 지류이다. 그들은 다른 종족과 결혼을 통하거나 마긴다나우(MAGINDANAW) 같은 밀접한 이웃종족과의 접촉을 통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칼라간은 수천 년 전 아시아의 남서부 이남대, 남으로 된 빛을 받침대, 청동상, 철물 등이다. 교회 중, 지붕 등도 절도 대상이 되고 있다. 절도의 원인은 중국, 인도 등 제3세계의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웨일스 교회의 보습 업무 90%를 담당하는 에클레시아스티컬 보험 관계자는 "중국, 인도, 브라질의 개발 붐으로 남과 구리 수요가 많아지면서 빛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교회 지붕까지 뜯어가는 바람에 수리하는라 교회가 파산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간 교회로부터 제기된 보험 처리 요구는 1900건이었다. 2003년 같은 기간 보험 처리 요구는 10건에 불과했다. 영국 교회는 대부분 100년 이상 된 역사적 건물이 많다. 따라서 교회 대상의 절도범 증가는 단순한 절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심각한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영국인들의 시각이다. 교통 경찰관 책임자는 "영국에서 한 달간 발생하는 범죄 1만 건 중 7000건이 이 같은 절도 관련된 절도사건"이라며 "교회 절도는 테러리즘 다음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부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목수는 1년에 두세 번 재배해서 수확하는 주요 작물이다. 연안지역 칼라간족은 어부거나 농장 노동자들이다. 삶의 모습 칼라간족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부들이다. 저지대에서는 습한 쌀(WET RICE)이 경작되고, 산지에서는 건조한 쌀(DRY RICE)과 옥수수를 경작한다. 양(YANG)과 맛좋은 감자 또한 주요 작물이다. 토마토, 호박, 콩 같은 채소들도 재배한다. 풍부한 코코넛과 많은 종류의 과일들도 얻을 수 있다. 염소 사육과 양계를 통해 육식을 한다. 농사뿐 아니라 생선을 잡고 야생 음식들과 습지로부터 다양한 먹거리 재료들을 얻는다. 칼라간족 사회의 고위층들은 육체노동 등을 하지 않지만 성별에 따른 뚜렷한 구별 없이 모두 일한다. 남자들은 쟁기

질하고 밭 갈고 힘든 농사일을 한다. 여자들은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하고 종종 다 자란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나무, 대나무, 등나무, 갈대, 섬유의 수공예 기술로 만든 대부분의 품목들은 개인적 용도들이지만 편뿔, 돛자리, 바구니 등은 시장에서 팔기위해 만든다. 칼라간족의 예술은 실로 짜고 바구니를 만들고 일종의 장신구들을 만드는 것 등 제한적이다. 개인적 장식품인 팔찌나 등은 옷, 구슬달린 장신구, 다른 액세서리들은 독특하고 화려하다. 특별한 때는 징과 다른 악기의 리듬 있는 음악에 맞춰 우아한 춤을 춘다. 칼라간족의 사회구조는 사회적 지위 체계, 확실한 혈통의 관계, 그리고 독특한 결혼양식에 의해 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보다는 혈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위층 가정들은 그들의 계보를 증

명하기 위해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 칼라간족의 결혼은 보통 일부일처이다. 일부다처가 가능한 하지만 이는 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에게 기술로 만든 대부분의 품목들은 개인적 용도들이지만 편뿔, 돛자리, 바구니 등은 시장에서 팔기위해 만든다. 칼라간족의 예술은 실로 짜고 바구니를 만들고 일종의 장신구들을 만드는 것 등 제한적이다. 개인적 장식품인 팔찌나 등은 옷, 구슬달린 장신구, 다른 액세서리들은 독특하고 화려하다. 특별한 때는 징과 다른 악기의 리듬 있는 음악에 맞춰 우아한 춤을 춘다. 칼라간족의 사회구조는 사회적 지위 체계, 확실한 혈통의 관계, 그리고 독특한 결혼양식에 의해 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보다는 혈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위층 가정들은 그들의 계보를 증

명하기 위해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 칼라간족의 결혼은 보통 일부일처이다. 일부다처가 가능한 하지만 이는 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에게 기술로 만든 대부분의 품목들은 개인적 용도들이지만 편뿔, 돛자리, 바구니 등은 시장에서 팔기위해 만든다. 칼라간족의 예술은 실로 짜고 바구니를 만들고 일종의 장신구들을 만드는 것 등 제한적이다. 개인적 장식품인 팔찌나 등은 옷, 구슬달린 장신구, 다른 액세서리들은 독특하고 화려하다. 특별한 때는 징과 다른 악기의 리듬 있는 음악에 맞춰 우아한 춤을 춘다. 칼라간족의 사회구조는 사회적 지위 체계, 확실한 혈통의 관계, 그리고 독특한 결혼양식에 의해 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보다는 혈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위층 가정들은 그들의 계보를 증

명하기 위해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 칼라간족의 결혼은 보통 일부일처이다. 일부다처가 가능한 하지만 이는 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에게 기술로 만든 대부분의 품목들은 개인적 용도들이지만 편뿔, 돛자리, 바구니 등은 시장에서 팔기위해 만든다. 칼라간족의 예술은 실로 짜고 바구니를 만들고 일종의 장신구들을 만드는 것 등 제한적이다. 개인적 장식품인 팔찌나 등은 옷, 구슬달린 장신구, 다른 액세서리들은 독특하고 화려하다. 특별한 때는 징과 다른 악기의 리듬 있는 음악에 맞춰 우아한 춤을 춘다. 칼라간족의 사회구조는 사회적 지위 체계, 확실한 혈통의 관계, 그리고 독특한 결혼양식에 의해 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보다는 혈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위층 가정들은 그들의 계보를 증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유서깊은 영국교회 절도범으로 골치

영국 교회가 때마침 절도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쪽 기독교 뉴스 매체인 ENI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영국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절도범들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주로 훔쳐가는 교회 물건은 구리로 된 조형물, 납으로 된 빛물 받침대, 청동상, 철물 등이다. 교회 중, 지붕 등도 절도 대상이 되고 있다. 절도의 원인은 중국, 인도 등 제3세계의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웨일스 교회의 보습 업무 90%를 담당하는 에클레시아스티컬 보험 관계자는 "중국, 인도, 브라질의 개발 붐으로 남과 구리 수요가 많아지면서 빛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교회 지붕까지 뜯어가는 바람에 수리하는라 교회가 파산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간 교회로부터 제기된 보험 처리 요구는 1900건이었다. 2003년 같은 기간 보험 처리 요구는 10건에 불과했다.

영국 교회는 대부분 100년 이상 된 역사적 건물이 많다. 따라서 교회 대상의 절도범 증가는 단순한 절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심각한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영국인들의 시각이다. 교통 경찰관 책임자는 "영국에서 한 달간 발생하는 범죄 1만 건 중 7000건이 이 같은 절도 관련된 절도사건"이라며 "교회 절도는 테러리즘 다음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부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교영화 '크레이저스' 미 박스오피스 4위

기독교 영화인 '크레이저스'(Courageous)가 미국에서 개봉 4일째인 3일 총 9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 개봉한 신작 4편중에서는 최고의 성적이다. 주말 사이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간만에 본 가장 좋은 영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같은 영화가 될 것", "그저 놀랍다"는 등의 호평을 내놓고 있다. '크레이저스'는 4명의 경찰관이 주인공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자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 중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고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남성, 아버지, 남편상을 제시하고 있다. 알바니 서우드침교회에서 만든 서우드픽처스에서 제작한 이번 기독교 영화의 제작비는 100만 달러가량이었다. 50만 달러의 제작비로 33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기독교영화 '파이어프루프' 역시 서우드픽처스의 작품이었다.

크레이저스 뒤를 잇는 신작 영화는 인셉션에서 열연한 조던 고든 레빗과 그린호넷에 출연한 세드 로켄이 주연한 코미디 드라마 '50/50', 서스펜스 스릴러 '드림 하우스', 로맨틱 드라마 'What's your Number?'가 있다.

리처드 도킨스, 기독교 변증학자와 토론 거부

'만들어진 신(The God Illusion)'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Dawkins)가 기독교 변증학자와의 토론을 또다시 거절할 테 따라 무신론자 진영으로부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도킨스는 저술 활동뿐 아니라 강연, 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오늘날 그 어떤 무신론자들보다 더욱 급진적인 무신론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그에게 미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Craig) 박사는 신의 존재와 신앙의 합리성에 대해 토론하기를 '만들어진 신' 발간 이후 요청했고, 도킨스는 이를 거절할 바 있다.

현재 도킨스의 출신지인 영국에서 '합리적인 신앙(Reasonable Faith)'을 주제로 컨퍼런스 투어를 계획 중인 크레이그 박사는 최근 또다시 도킨스에 토론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다. "그(크레이그 박사)는 단지 직업적 토론가일뿐"이라는 냉담한 반응과 함께였다. 크레이그 박사는 펠렛신학교 철학 교수이자 기독교 변증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학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바트 에만(Ehrman), 리처드 테일러(Taylor), 샘 해리스(Harris), 크리스토퍼 히

친스(Hitchens) 등 다른 유명 무신론자들과도 토론 해 왔다.

한편 도킨스의 거둬진 토론 거부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이슈화되자 무신론자 진영은 실망을 드러내는 한편, 비난의 표시까지도 내비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 중 한 명인 위세스터 칼리지 철학 강사이자 무신론자인 대니얼 케임은 도킨스에게 직접 편지를 써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와의 토론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력에 있어서 막대한 낙이며 당신이 겁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크레이그 박사는 자신은 여전히 도킨스와 토론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론회는 도킨스가 동물학 교수로 재직 중인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오는 10월 26일 열릴 예정이며, 그가 참석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스티브 잡스의 업적들, 복음 전파 동로 됐다"

스티브 잡스를 회고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팟, 아이폰 등과 함께 그의 창의적 생각들과 혁신, 그가 이룩한 IT계의 수많은 업적 등이 추억으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신앙에 기여한 바도 있을까? 잡스는 불교신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 미국 기독교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그의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리포드신학교의 총장 마이클 밀튼은 "리포드신학교는 애플이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감당해야 할 것과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하나님이 로마가 구축한 길을 통해 바울을 보내 선교하셨듯이 애플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밀튼은 "잡스는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가 구축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다"고 말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 에드 스테처는 "잡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스테처는 "그는 발명가 이상이었으며 대중적 인물이었으며 공공적 시각을 가진 드문 인재였다"고 칭찬했다. 또 "그의 건강 악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더욱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독교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크리스천포스트는 "잡스가 자신이 기독교계에 끼친 이런 영향을 알았을 가능성은 적지만, 기독교계는 그가 만든 것들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감사를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조엘 오스틴 "대선후보, 물론교인이라도 투표 가능"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레이크우드처치의 담임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여러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놨다. 최근 CNN의 '파이어스 모건 투나잇'(Piers Morgan Tonight)에 출연해 인터뷰한 오스틴 목사는 다가오는 대선과 미 정부의 중동정책 등 정치적 현안들은 물론 낙태, 동성결혼, 사형제 등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도덕적 현안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먼저 대선과 관련해 오스틴 목사는 대통령 후보의 종교가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후보가 물론교인이라도 투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도 "물론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는 물론교인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으로, 그의 종교가 당선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스틴 목사는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유대교인이나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투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국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나 (대통령 후보로는) 내 신앙에 더 가까운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동 정책과 관련해 오스틴 목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설 것을 명백히 지시하고 계시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런 동시에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들을 향하고 있다"며 "그들은 평화를 원하고, 성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스틴 목사는 낙태와 동성결혼, 사형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낙태에 대해서는 오스틴 목사는 "모든 아기들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낙태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보다 불분명한 답이 나왔다.

오스틴 목사는 성경에 나온 결혼은 모두 남성과 여성간에 이뤄졌으며, "그것(동성결혼)은 내 신앙에 반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아내가 만약 지인들 가운데서 동성결혼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에 대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힐 만큼 면밀히 검토해볼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p>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희수 주일 10:00, 11:00, 12:00 수일 10:00,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월-금) Tel: (716) 338-1825, Fax: (716) 338-8771 41-64 46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andglory@yabw.com</p>	<p>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0:00: 오후 8:45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45 Tel: (716) 439-7758, Fax: (716) 439-6637 41-20 Gowanus Blvd., Brooklyn, NY 11214 www.nbcwoc.org</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Tel: (718) 464-2285, Fax: (718) 464-8882 45-75 75th Street, Flushing, NY 11355 www.nycgsc.org</p>	<p>뉴욕복향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Tel: (718) 461-9194, Fax: (718) 461-8223 40-60 66th Ave., Flushing, NY 11354 www.nycwoc.org</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백현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Tel: (718) 461-9377, Fax: (718) 461-898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860</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광현 주 일 해: 오후 10:30 수 일 해: 오후 11:30 신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8:00 Tel: (718) 461-3678, Fax: (718) 461-3491 40-64 152 St, Flushing, NY 11354 www.nycsaram.org</p>	<p>뉴욕순복음안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0:00: 오후 7:3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Tel: (718) 461-7828 / CP, (718) 461-7777 45-68 152 St., Flushing, NY 11354 www.nycwoc.com</p>
<p>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계현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월-금) www.nycwoc.org Tel: (718) 461-3752, Fax: (718) 461-1827 252-40 76th Avenue (at 76th), Little Neck, NY 11362</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0:00: 오후 8:3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 오후 8:30(월-금) Tel: (718) 463-3271, Fax: (718) 463-4378 71-77 Jackson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p>뉴욕효산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4:00: 오후 7:15 34:00: 오후 8:30 34:00: 오후 10:15 44:00: 오후 12:00 34:00: 오후 1:30 44:00: 오후 3:00 34:00: 오후 7:30 44:00: 오후 9:00 세례기도: 오후 8:00(월-금) Tel: (718) 718-2795, Fax: (718) 718-3777 42-15 163rd St., Flushing, NY 11355</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0:00: 오후 11: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월-금) Tel: (201) 342-0184(CA), Fax: (201) 342-5204 300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 일 해: 오후 10:30 수 일 해: 오후 11:30 신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718) 461-2171 Fax: (718) 461-3537 25-27 104 St., Flushing, NY 11358</p>	<p>봉이일랜드성경교회 담임목사: 김석영 주 일 해: 오후 11:30 수 일 해: 오후 11:30 신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718) 461-3456, Fax: (718) 461-4264 180 Edison Ave., Weehawken, NY 11090</p>	<p>어린양 교회 담임목사: 김수택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11:30 신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Tel: (718) 461-4328, Fax: (718) 461-4622 40-37 47th Ave., Bayside, NY 11377</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 일 해: 오후 12:30 수 일 해: 오후 8: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718) 717-8888, Fax: (718) 717-8888 70 Flushing Rd., Maspeth, NY 11360</p>	<p>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0:00: 오후 12: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718) 461-1681, Fax: (718) 461-1681 168-12 72nd Street, Flushing, NY 11358</p>	<p>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 일 해: 오후 11:00 수 일 해: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718) 461-6222(CA), Fax: (718) 461-62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순 주일 10:00: 오후 8:3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718) 461-6240, Fax: (718) 461-7269 445-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queens.org</p>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0:00: 오후 8:3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718) 461-1101, Fax: (718) 461-1101 88-06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c.org</p>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 일 해: 오후 11:00 수 일 해: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718) 461-2777, Fax: (718) 461-2769 70 School St., Great Neck, NY 11042 E-mail: hancm@quest.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천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6-0009 N.Y.: Tel: (323) 666-0048 Fax: (718) 461-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0:00: 오후 11: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527) 7-4426, Fax: (527) 7-4426 Rua Santa Rita, 272-940-840 Praça Dep 01229-012</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011) 55-11-3270-6222, 3277-5141 R. Lúcio Alves 18 Liberdade CP CEP 01529-010</p>	<p>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8:3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527) 4689-8754, 8688-1169 RUA SANTA RITA, 272-940-840 PAUJO-01229-012</p>	<p>아르헨티나 재민교회 담임목사: 최광현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54) 011-421-7781 R4 SANTA RITA, 272-940-840 CAP. FED., B.B. A.R.,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이상 주일 10:00: 오후 11: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56) 212-276-6766 Bosque Centro - 3 Calle 325 Chile</p>	<p>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환근 목사 파라과이선교교장 주일 10:00: 오후 8:00 수일 10:00: 오후 11:00 신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 Tel: (596) 271-876-686 E-mail: hmc@hmc.org Carveritas NO. 001, Asuncion-PARAGUAY</p>

종교다원주의 연구 (9)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종교의 벽을 허물다

불교와의 만남

1991년 5월 7일, 한국의 감신대 학장이었던 변선환 교수는 교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했다. 감리교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감신대 내에 분규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가 교수직 박탈 정도가 아닌 교회로부터의 추방을 선고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 이후,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졌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가 그런 중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와 반대 입장에서는 변선환은 감리교 내의 보수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과연 변선환 교수가 그런 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기독교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만이 구원을 베풀었다고 하는 전통적 교리는 과감히 버려야 할 낡은 생각이라고 가르쳐왔다. 즉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가 과감히 종교의 벽을 허물려 하였을까? 이 사건은 그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였기에 생긴 것이다. 그는 재판의 최후진술에서도 기독교는 전체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복자의 모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종교적 다원주의는 감리교의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선환(1928-1995)은 평양의 외항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전통적 문화와 새로운 근대 문화가 만나는 장소였다. 신화와 상징을 중시하는 부족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하던 그가 세계종교를 접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다. 동경에서 살다가 돌아온 형의 12권짜리 수양전집을 통하여

화신학교에 입학하였다가 6.25사변이 나자 남하하여 1951년 부산에 있던 감리교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였다. 그는 신학교에서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접하게 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상이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서 증거 되어 이미 토착화가 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향후 이화여고에서 교목생활을 하던 그는 미국의 드류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와의 본격적인

하는가에 대한 관심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칼라이너의 '의명의 기독교인'과 불교적 기독교를 지향하는 존 퓌를 접하였다. 더욱이 그와 같이 동행하였던 그의 아내도 바젤대학에서 공부하였는데, 그녀의 논문은 '갈야스피스의 철학적 신앙과 원효의 대승신앙과의 비교'였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불교적 사상을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적 기독교라는 신학적 틀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1970년대 말부터 불교와 기독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는 불교신학자 이기영 박사와의 교류를 통하여 두 종교가 배타적인 자제를 버리고 상호 협력하여 한국적 문화공동체를 이루려 하였다. 단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로시의 존재할이란 개념의 자아인식을 넘어 책임적 자아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탈 서구, 천 동양

1980년대에 들어와 변선환에게

하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게 되었다. 그는 1982년에 발표한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라는 논문에서 모든 종교들이 교리의 한계를 벗어나 좀 더 근원적인 실존적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종교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가 신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더욱 급진적인 포용주의를 펼친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교회 중심주의적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가시적 교회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회의 콧대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나온 비평이 아니다. 그가 지향하던 '신중심의 신학'이 지닌 개방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여,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소개하거나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그의 '신중심의 신학'은 하나의 통일된 종교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반성?

그러므로 그의 토착화는 기독교의 반성을 주제로 한다. 통일된 종교의 개념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독특성을 주장했던 과거의 신학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서구적 기독교라는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본 불교와 다른 동양 종교는 우상과 미신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무신론적 문화였으며, 아직도 이러한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신학적 편견이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성이 없다면 다종교의 현실 속에서 타종교와의 공존을 어렵게 하며 기독교에게 주어진 문화적 변혁이란 사명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 자기 결단

변선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다. 그는 다른 종교의 신적경험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G. 카우프만으로부터 상상력을 통한 신학방법을 선택하였다. 전통적인 신학방법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시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가장 고귀한 의미이다. 그러나 그는 신학의 사명을 설명이 아닌, 우리의 삶이 추구하여야 할 근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구성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를 모범으로 따르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실존의 자기 결단의 궁극적인 예가 된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삶을 배울 수 있다.

결국 변선환이 소개하는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미지의 신을 향한 자기 노력을 요구한다. 그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하다. 단지 예수처럼 자각을 통한 자기 결단을 촉구할 뿐이다. 이런 종교행위는 불교가 말하는 수행을 통한 득도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우리는 그가 말하는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원주의적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다음호에 계속)

변선환, '신중심의 신학' 기초로 타종교에도 구원있음을 피력 보편적 우주적 절대자에 대한 체험 바탕의 통합된 종교 추구

석가, 공자,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스 등 성현들을 접한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와 시대를 초월하여 위대한 인물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한 것은 18세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인 복음은 동양적 신학으로 토착화 된 것이었다.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신석구 목사는 한학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로서, 동양종교를 배경으로 복음을 해석하였다. 이로서 변선환은 어려서부터 한국적이며 동양적 복음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948년에 평양에 있는 성

만남은 그가 1971년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유학할 때 생긴 일이었다.

그는 바젤대학에서 1976년까지 유학생활을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신학사상을 확고히 세웠다. 그의 논문 제목은 '선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의 궁극성-칼 마이켈슨, 야기 세이찌, 후리츠 부리'였다. 그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교에 대한 자료를 접하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여 나갔다. 그는 불교를 특징으로 하는 동양적 배경을 두고 기독교 신학자가 된다는 의미와 동양의 불교철학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

커다란 사상적 변화가 생겼다. 좀 더 동양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앞의 글에서 소개한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폴 니터와 라이문도 파니카 등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아시아의 종교를 중심으로 서구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는 과감히 서구적 편견을 버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다른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과 같이 '신중심의 신학'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가 결코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사실과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가 말

변선환은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뿐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지닌 구원 역사적 의미도 무시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넘어서 더욱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절대자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된 종교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신은 성경이 증거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이며 보편적인 존재이다. 이 신은 불교와 기독교에 속한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하나의 신이 베푸는 하나의 구원이 두 종교를 통해 나타날 뿐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예배: 오전 1:45 [주일, 성탄절, 금요헌당예배: 오후 7:30] www.gmsahanchurch.org Tel: (714) 925-8540, Fax: (714) 925-6236 6539 Knott Ave., Santa Fe,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30(성탄절) 주일 5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www.nasunsun.com / www.nasun.com Tel: (925) 613-6488, Fax: (925) 973-4884 1795 N. Edgemoor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0:00 새가족 기도: 오전 9:30 Tel: (714) 413-4500, Fax: (714) 413-0977 1825 Wilshire Blvd., L.A., CA 90027 www.nasengyong.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323) 809-7323, Fax: (323) 838-1696 1228 E. Palms Ave., L.A., CA 90015 (Palms/Fairfax)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금요헌당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213) 481-2778 / Fax: (213) 481-3787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den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www.rcch.org Tel: (714) 245-2523, Fax: (714) 245-2525 1628 S. Western Ave., L.A., CA 90078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 예배: 오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3777 1711 N. Sepulveda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전 8: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 Tel: (949) 719-2244, Fax: (949) 719-2229 152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권영자 목사 "영광의 대문, 영광의 사랑" "영광의 사랑, 영광의 사랑" "영광의 사랑, 영광의 사랑" Tel: (213) 249-6960 / Fax: (213) 249-6162 270 Central Expressway, #B, L.A., CA 90007 -기도와 사랑, 복음의 열매 104장-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818) 789-0826, 8206 / Fax: (818) 789-0412 1202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2	라하브라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626) 660-6820, Fax: (626) 660-6844 507 S. Lid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0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213) 899-6377, 9679 510 E.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병봉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www.mjupwanchurch.org Tel: (213) 281-2213, Fax: (213) 281-2225 770 Reseda Pl., Los Angeles, CA 90044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월-토)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월-토)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월-토)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월-토) 수요일 예배: 오후 7:30(월-토)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909) 485-4010 / Fax: (909) 485-4012 16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7 www.bjwc.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연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00(성탄절) 주일 6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949) 454-0110 / Fax: (949) 454-0112 16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7 www.bic.org	밴쿠버빌라벨리아교회 담임목사: 임진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604) 626-2700, Fax: (604) 626-2717 5125 15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714) 664-6914 172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2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626) 278-2777, Fax: (626) 957-2578 1567 E. Seattle St., Covina, CA 91724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8:00 주일 5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6부 예배: 오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949) 363-5287, Fax: (949) 363-5282 16214 Rhoads St., Murrieta, CA 9256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213) 745-9151, Fax: (213) 745-9152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김영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310) 325-9621, Fax: (310) 325-4262 22816 E.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명학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Church: (619) 571-2019 / Home: (619) 564-6448 2130 Linc St., San Diego, CA 92111 myangel76@yahoo.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916) 249-2877, Fax: (916) 249-0619 www.amc.org 2720 Montrose Ave., Westvale, CA 91720	업비안침례교회 담임목사: 한홍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www.ubchchurch.org Tel: (949) 867-8455 / Fax: (949) 867-3472 5193 Wilshire Ave., Irvine, CA 92604	오렌지카운티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714) 661-2929 / Fax: (714) 672-3097 8500 Soles Ave., Westminster, CA 92683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경상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7: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213) 246-403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9
침례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성탄절)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성탄절)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성탄절) 주일 5부 예배: 오전 11:00(성탄절) 주일 6부 예배: 오전 7:30(성탄절) 수요일 예배: 오후 7:30(성탄절) 새가족 기도: 오전 9:30(성탄절) Tel: (213) 864-4772, Fax: (213) 864-4738 62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부 예배: 오전 7:30 주일 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7부 예배: 오전 7:30 주일 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9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2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714) 449-3333, Fax: (714) 449-4277 18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진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6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7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8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9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10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11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12부 예배: 오전 11:45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909) 522-2224, Fax: (909) 522-4480 1707 N. Gile Ave., Pomona, CA 9176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부 예배: 오전 7:30 주일 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7부 예배: 오전 7:30 주일 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9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2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213) 749-4900, Fax: (213) 749-4700 1907 S. Grand Ave., L.A., CA 90015 www.pg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성탄절)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부 예배: 오전 7:30 주일 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7부 예배: 오전 7:30 주일 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9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2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Tel: (909) 398-2544, Fax: (909) 398-2547 172 E. Duane St., San Bernardino, CA 9240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홍룡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부 예배: 오전 7:30 주일 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7부 예배: 오전 7:30 주일 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9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2부 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 오전 9:30(월-토) www.stonestone.org / www.stonestonechurch.org Tel: (714) 620-4040, Fax: (714) 620-8400 2628 E.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10) 655-0930 (310) 655-0018 ■ N.Y.: Tel: (212) 856-4400 Fax: (212) 85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북동교회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59.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58:12):교환 시리즈를 시작하며

미국에 와서 살며 느낀 것들 중에 한국과 확연히 다른 것 한 가지는 물건을 바꾸는 것이었다. 불량품은 물론이고 성능이나 색깔이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두 말 없이 바꾸어 준다. 새 물건으로도 바꾸어 줄뿐 아니라 돈으로도 바꾸어 준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속아서 사온 물건들을 바꾸어야 한다. 수많은 짝퉁들을 진품으로 속아서 샀기 때문이다. 이 짝퉁들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물건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 최상품의 명품 물건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시어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므로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음에 틀림없다. 환경도 그 위대한 사람이 격식을 갖추고 살만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은 아담의 범죄, 노아 홍수의 격변, 바벨탑 사건에 의한 인류의 찢어짐 등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살기에는 아주 아주 부적합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후 세월이 지나면서 최상품의 진품들이 모두 다 고장이 났거나 짝퉁들로 대체되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짝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많은 교인들이 가진 복음도 짝퉁이거나 문제가 있다. 사이비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이 견지한 교회 안에 믿은 있지만 자기 맘대로 원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진정으로 강하게 믿고 있어도 그들이 가진 짝퉁 복음과 고장 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정확무오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무슨 내용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왜곡하여 읽도록 하는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결과적으로 마음 깊은 속에 왜곡된 진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가

르침들이 교회에 만연해 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진리를 바꿔치기 해 버린다.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속이지 않고 있는 것들과 사실들을 동원하여 "정말로?"라고 질문하여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사탄은 지금도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정말로?"라고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을 심어주고 있다.

사탄의 그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짝퉁진리 유신론적 진화론 받아들인 나라마다 교회 감소

창1장 실제 창조기록으로, 창11장까지 인류 공통역사로 바뀌어



기초 다시 쌓기
수백만년의 지구역사와 진화론으로 무너져고 있는 기초와 세워지고 있는 기초

거두고 있다. 사실이 아닌 수억 년의 지구역사와 진화론이 1900년대 초에 영국과 유럽을 휩쓸어버렸다. 여기에 대응하여 교회는 짝퉁 창조론으로 대응을 했다.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하신거야!'라고. 그러나 이 짝퉁은 진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영국과 유럽 교회들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진리를 버리고 짝퉁진리(유신론적 진화론)를 받아들였을 때 불과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거의 문을 닫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미국 교회의 차례가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기 시작한 지 아직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심각한 교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미 문을 닫은 교회도 수 없이 많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와 기독교 방송과 매체들을 가진 미국에서 왜 매일 신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리가 아닌 짝퉁 진리를 가르치고 공급했기 때문이다. 역시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이 짝퉁 진리로 교회가 지속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많은 짝퉁 진리를 가진 자유주의 교회부터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경향은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다행하게도 진화론이 팽배한 유럽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격하던 미국에서 문물을 들여왔다. 또 불행 중 다행히도 한국은 미국보다 10여 년 늦게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영향력이 늦어 지기는 했지만 요즘 문화가 빛과 같은 속도로 전해지기 때문에 나쁜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원래부터 전 국민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한국은 더욱 빠른 속도로 교회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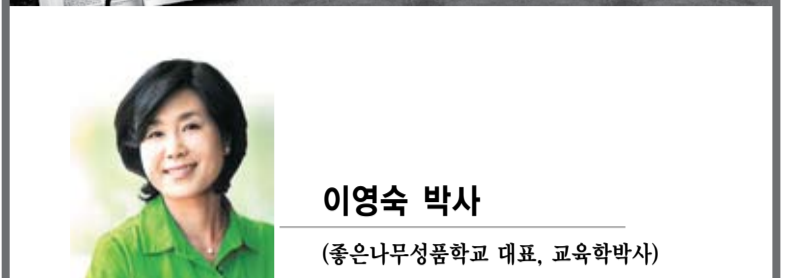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영국이나 유럽처럼 교회가 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에서 진화론이 득세하는 동안 교회에서는 그 거짓을 이길 방법이 믿음뿐이었다. 그래서 영국의 존경 받는 설교가 스피전 목사님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진화론을 수용하고 말았다. 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 C. S. 루이스는 진화 자체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성경과 다른 수억 년의 짝퉁 지식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들의 몰락과 함께 영국교회는 몰락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 거짓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그 짝퉁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짝퉁들을 버리고 진품으로 교환을 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짝퉁 지식들을 하나씩 성경의 진리로 바꾸어 그 위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복음의 기초는 실존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과 성경적(진짜) 창조다. 세상에서 속아서 사온 물건들을 다 돌려주고 진품으로 바꾸어 와야 한다. 진화의 결과물들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상의 가짜 역사는 다 버리고 성경의 진짜 역사로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빅뱅 대신 6일간의 창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신에 땅을 침몰한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문화 발전이 아니라 노아 홍수 전 철기시대에서 바벨탑을 줌으로 잃어버린 문명과 갑자기 다시 시작된 문명으로 바꾸어야 한다. 창세기 1장을 시에서 실제 창조기록으로, 창세기 11장까지를 설화에서 전 인류의 공통 역사로 바꾸어야 소망이 있다. 진화론자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창조물 공동도 다시 빼앗아 와야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별들도 진화론자들에게 빼앗아 와야 한다. 그것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성품칼럼 (24)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자녀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면

하버드 의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한 삶에 이르는 7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일런트 교수가 제시하는 일곱 가지 삶의 비결 가운데 첫 번째가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베일런트 교수가 열 살이었을 때 경험한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베일런트 교수의 아버지도 하버드의 고교학자였습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유능한 고고학자를 기억하세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이 고고학자의 모델로 삼은 사람이 바로 베일런트 교수의 아버지 조지 C. 베일런트 교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총으로 자살했고 열 살된 아들 조지 베일런트는 아마 이 때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베일런트 교수는 그러나 이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인생의 갈등과 과오를 부정하지 말고 '승화'와 '유머'로 받아들이 것을 권유합니다. 나머지 6가지 비결 곧 안정된 결혼, 알맞은 교육,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몸무게 등을 제시하며 삶의 오묘함을 경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극적인 주파수를 발한다. 과학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숫자로 말하기엔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했습니다.

성품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성품 내적치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품이 모질어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성품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살아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충격과 고통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이런 과거의 상처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이란 참 요묘하면서도 의외로 간단한 하나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수도 있고 진창 속에 뛰구는 것 같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품이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적인 결단 즉 나의 행동들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품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우리 삶의 한 비밀입니다. 좋은 성품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에너지 같습니다. 성품은 또 노련한 선장처럼 우리 삶을 비굴하지도 도도하지도 않게 이끌어주는 항구라는 항구이기에 이르기도 외롭습니다. 참으로 노련한 선장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기보다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한다고 합니다. 좋은 성품이란 이처럼 우리 삶속에 불어오는 수많은 폭풍우를 파도타기 하듯 넘어섬으로써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에릭슨 교수가 제시한 인간성장단계의 마지막 발달과제를 주목하게 됩니다. 에릭슨 교수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치러야 할 성장의 단계를 '고결한 성품'에 둡니다. 사회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잘해 내면 고결한 성품에 이르고 사회적 통합에 실패하면 그림적인 성품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통합이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기쁨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아픔도 나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감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고결한 성품을 갖게 만드는 비결이란 것이지요.

갑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까지 감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성품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품 리더야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지요.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양육합니다. 자녀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는 일찍부터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김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전 10:00 (월-토)</p> <p>Tel: (703) 379-7979, Fax: (703) 379-9191 6534 N. Sunset Ave., Mt. Lee Village, NY 10914</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1:30</p> <p>Tel: (703) 341-6291, Fax: (703) 341-1698 2819 McIver Rd., Chandler, NC 2802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7:00</p> <p>Tel: (303) 437-8800, Fax: (303) 437-8943 7785 Kipling St., Arvada, CO 80009</p>	<p>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 222-8291, Fax: (410) 222-8291 3290 Martin Rd., Levittown, PA 19066</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 487-9179, Fax: (410) 487-9179 1600 Rockrose Rd., Levittown, PA 19067</p>	<p>맨얼교회 담임목사: 김윤재 주일 1부 예배: 오전 9: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 487-9179, Fax: (410) 487-9179 3700 St. Johns Av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617) 252-4450-4478, Fax: (617) 252-4478 750 Main St., Hingham, MA 01946</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 327-8444, Fax: (410) 327-8444 1005 Beardsley Ave., Mt. Airy, MD 21092</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한국)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202) 455-0191 5007 Peach Ave., P.O. Box 5558 Lucy, NC 28558</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206) 527-0387 / Fax: (206) 524-1749 4640 N.E. 169th St., Seattle, WA 98125 www.kjpncc.org</p>	<p>입천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301) 820-8849 / 사택: (301) 825-3179 850 Rony Rd., Gaithersburg, MD 20878 www.kjms.com</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207) 344-6446, Fax: (207) 344-3132 2320 Green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p> <p>Tel: (915) 757-1496, 사택: (915) 757-4363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4) 542-0296, Fax: (714) 542-0377 750 Wilbur St., Homestead, CA 94037</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경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254) 234-6766, (254) 231-4537 401 E. 9th St., Dallas, TX 75247</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성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703) 341-6291, Fax: (703) 341-1698 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7</p>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916) 494-2200, Fax: (916) 494-2200 10201 Robbins Rd., Richmond, VA 23228</p>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410) 203-0318, Fax: (410) 203-0318 328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252) 385-1989 7481 S. Verde St., Thomas, NC 28686</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252) 385-1989, Fax: (252) 385-1989 8702 E. 8th St., Thomas, NC 28686</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252) 385-1989, Fax: (252) 385-1989 8224 E. 8th St., Thomas, NC 28686</p>
<p>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407) 725-0191, Fax: (407) 725-0191 1150 S. Deb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860) 842-4738, Fax: (860) 842-6626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지역</p>	<p>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360) 726-9011 1835-A Pecko Ave., Everett, WA 98201</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802) 739-7004, Cell: (802) 219-4982 3023 8th Ave., Honolulu, HI 96818</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 277-2386/967-1778/942-2522 1367 E. Banelia St., Honolulu,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 947-4252, Fax: (808) 947-4167 2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거듭난 기업, 변화된 리더십

제16차 북미주 한인CBMC LA대회

제16차 북미주 한인CBMC LA 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웨스틴 호텔 LAX 에어포트에서 성황리에 열렸

다. '거듭난 기업, 변화된 리더십'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민중기 목사(충현선교교회)가 주제 강연을, 정재훈 박사,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강충원 장로(은혜한인교회)가 특강을, 이철 목사(가나안교회)와 노진준 목사(한길교회)가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인도했다. 또한 김 민 행장(오픈뱅크)과 강석희 열반이 시장이 간증을, 이지영 씨가 사역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광익, 황삼열, 브렛 존슨, 솔로몬김 사장이 워크숍을 인

도했다. 이봉우 공동준비위원장은 "1년 한 번씩 50개주에서 40개 지회가 모인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남가주에서 열렸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황선철 공동준비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여러 강사 목사님의 주제 강의를 들으며 회원 간 다양한 교재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리고 변화된 기업이 변화되고 가정 등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불경기 시대에 지혜와 전략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유럽, 한국의 CBMC회원들이 참가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박준호 기자)



제16차 북미주 한인CBMC LA대회가 북미주 CBMC총연합회 주최로 웨스틴LAX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 자유통일포럼 대표 정창인 박사 초청 서극강연회가 7일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미주총회 주최로 나성정동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자유통일포럼 정창인 박사 강연회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미주총회 주최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미주총회(회장 제임스한)가 주최한 정창인 박사(한국 자유통일포럼 대표) 강연회가 7일 오전 11시 나성정동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회에서 정창인 박사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설명했다.

정 박사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했을 때 이승만은 밀사로 미국에 들어가 루즈벨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자주독립을 지키려 했다. 또한 해방 후 초대대통령으로서 미국에 나아가한 한국의 국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미국에 한국으로 국방력을 키질 수 있을 때까지 미군주둔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의 안전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이 되자 이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호통을 치며 한국을 지켜달라고 했으며 그로 인해 미군이 한국에 급히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상을 되찾아야 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과 친북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킬 수 없었다고 여기기에 이 대통령이 세운 모든 업적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이남 즉 남한으로만의 단독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했으며 남북 분단의 책임을 마치 이승만이 주도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못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처럼 북한도 염두에 두고 남북 모두의 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다. 즉 한반도 내 공산주의자와의 협력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과 소련 등의 반대로 인해 남한만의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한국에 이승만을 부정하는 세력은 친북세력 외에 광복회 멤버들이 있다. 그들은 임시정부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독립운동의 공로가 묻혀버리는 것을 우려해서 이승만의 업적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5.16세력들이 이승만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인 박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해방 후보다 더 심한 이념갈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을 한 정창인 박사는 이승만 연구의 저명한 권위자이던 평론가로서 육사(29기)를 졸업한 뒤 하버드 정책대학원을 거쳐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육사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국가 정상학위원회 고문, 자유통일포럼 대표와 이승만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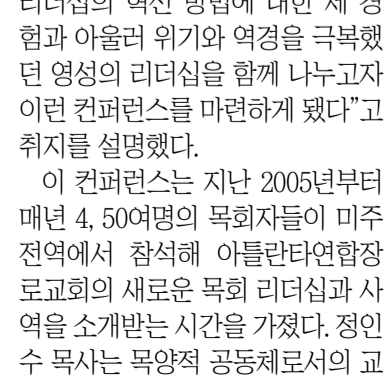
정인수 목사 "사역 노하우 나눈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제 6회 '목회자 비전컨퍼런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주최하는 '목회자 비전컨퍼런스'가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럽 및 중국, 한국과 미주 전역에서 총 45명의 목회자가 참석해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건강한 목회사역과 정인수 목사의 혁신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교회 사역을 참관했다. 정인수 목사는 "치열한 이민 목회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리더십에 있어 갈등과 파국에 처한 목회자들에게 멘토링과 아울러 사역의 노하우를 나누게 됐다"며 "이런 목회자들을 새롭게 훈련시키고 목회 리더십의 혁신 방법에 대한 제 경험과 아울러 위기와 역경을 극복했던 영성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자 이런 컨퍼런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컨퍼런스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4, 50여명의 목회자들이 미주 전역에서 참석해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새로운 목회 리더십과 사역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수 목사는 목양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혁신으로 나아가는 교회, 리더십, 사역론 등을 강의하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목회 패러다임을 나눴다. 참석 목회자들은 "정인수 목사의 강의를 통해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목회적 리더십의 현대적 특성과 적용 방법에 대해, 그리고 영감 있는 설교 작성에 대한 영감과 노하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무엇보다도 정 목사의 체계적인 목회 간증이 목회의 실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산 지혜로 가슴에 와 닿았다"고 덧붙였다.

또 참석한 목회자들은 연합장로교회 사역 현장인 어머니기도회 모임, 생수의강 모임들에 참석해 실제적 사역을 관찰하기도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목회자 비전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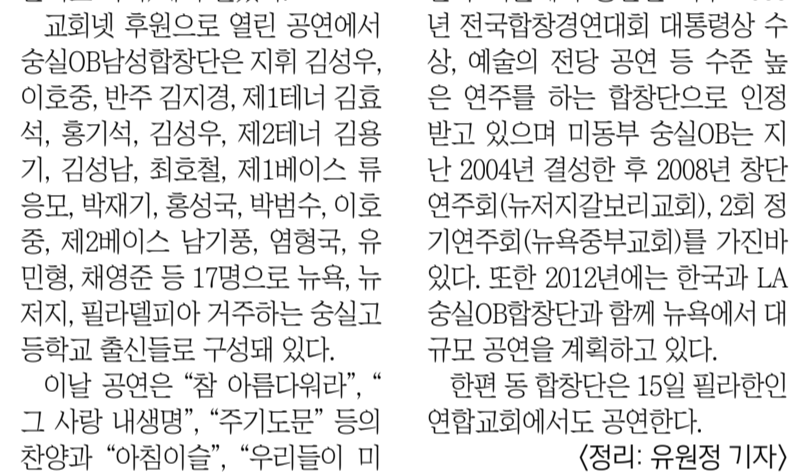


송실OB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주제 COCO 후원 송실OB합창단 정기연주회

코코 장애 아동 서비스 센터(COCO, 대표 전선덕 권사) 후원을 위한 송실OB합창단(단장 남기풍, 후원회장 류응모) 제3회 정기연주회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주제로 지난 8일 저녁 효신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교회회 후원으로 열린 공연에서 송실OB남성합창단은 지휘 김성우, 이호중, 반주 김지경, 제1테너 김효석, 홍기석, 김성우, 제2테너 김용기, 김성남, 최호철, 제1베이스 류응모, 박재기, 홍성국, 박범수, 이호중, 제2베이스 남기풍, 엄영국, 유민형, 채영준 등 17명으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거주하는 송실고등학교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연은 "참 아름다워라", "그 사랑 내생명", "주기도문" 등의 찬양과 "아침이슬", "우리가 미

남이다", "친구여" 등의 가곡과 워트 넘치는 연출로 참여한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솔로 김예하 어린이와 기타리스트 이성민 선생이 특별 출연했다. 송실OB 남성합창단은 1973년 한국 서울에서 창단된 이후 1983년 전국합창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예술의 전당 공연 등 수준 높은 연주를 하는 합창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동부 송실OB는 지난 2004년 결성한 후 2008년 창단 연주회(뉴저지갈보리교회), 2회 정기연주회(뉴욕중부교회)를 가진바 있다. 또한 2012년에는 한국과 LA 송실OB합창단과 함께 뉴욕에서 대규모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동 합창단은 15일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서 공연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선미니스트리가 주최한 감사학교에서 김정한 선교사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 만든다 선미니스트리 감사학교, 강사 잔 김, 김정한 목사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사)가 주최하는 '감사학교'가 열리고 있다.

'감사와 영적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인도한 김정한 선교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며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큰 이유는 사탄마귀가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주입해서이다. 따라서 부정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때로 우리는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 때 마귀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한 주간 감사했던 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한편 10일부터 사모와 권사 등 여성들을 위한 감사학교가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선미니스트리 감사학교 (714)350-695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8일 저녁 6시부터 열린 감사학교는 잔 김 목사와 김정한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잔 김 목사는 '감사자녀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부모에게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는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원칙과 우선순위를 잘 가르치지 않게 되면 자녀들은 원칙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가는 급한 일부터 처리하려고 하게 되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갈등해소방법을 잘 가르치면 성장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한 주간 감사했던 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한편 10일부터 사모와 권사 등 여성들을 위한 감사학교가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선미니스트리 감사학교 (714)350-695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미주찬송가페스티벌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열린문교회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합창 중창 솔로...미주찬송가페스티벌 미주찬송가공회, 이귀임 권사에 교회음악공로상

미주찬송가공회(회장 박재호 목사)가 주최한 제 2회 미주찬송가페스티벌 및 교회음악 공로사 시상식이 지난 6일 오후 7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조명한 목사(미주찬송가공회 협동총무) 사회, 이상복 목사(찬송가공회 이사) 기도에 이어 시편 150:1-6을 봉독한 후 류종길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경신 남성교회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울려 퍼지며 연주회의 막을 올렸다.

롬찬양대는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2곡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LA남성선교합창단, 셋별선교합창단, 필그림선교교회찬양단, 미주여성코랄합창단, 알렐렐루야남성중창단, LA여성선교합창단, 한아름합창단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미주교회 음악공로사 시상식을 갖고 지난 40년 동안 미주지역에 살며 교회음악에 헌신한 공로를 치하하며 이귀임 권사(LA여성선교합창단, 기쁨의 교회성가대 지휘)에게 미주교회 음악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날 페스티벌은 미주교계의 각 찬양단과 합창단, 중창단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소프라노 줄리아 김과 바리톤 김무섭 씨의 독창곡들의 선율은 참석한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교회찬양대로 특별 출연한 나성 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 살

이날 행사는 조명한 목사(미주찬송가공회 협동총무) 사회, 이상복 목사(찬송가공회 이사) 기도에 이어 시편 150:1-6을 봉독한 후 류종길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경신 남성교회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울려 퍼지며 연주회의 막을 올렸다.

이날 페스티벌은 미주교계의 각 찬양단과 합창단, 중창단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소프라노 줄리아 김과 바리톤 김무섭 씨의 독창곡들의 선율은 참석한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교회찬양대로 특별 출연한 나성 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 살

행사를 주관한 조명한 목사(크리스천뉴스워크 발행인)는 "앞으로 매년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며 교회음악공로사들도 발굴, 공로를 치하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주찬송가공회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자 기자)



지역 공공기관 주민 500여명 초청 주 예수교회 주최 제4회 음식문화축제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최하는 한국음식 문화축제가 지난 8일 열렸다. 카운티 정부,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 봉사자들과 지역주민 약 500여명을 초청한 이번 행사는 동 교회가 네 번째 갖는 축제로 김치, 호떡이 무료로 제공됐고, 초, 중등부 아이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팀의 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최근 CNN GO에서 조사 발표한 세계 50대 음식에 들어간 자랑스런 한국음식들(김치 12위, 불고기 23위, 비빔밥 40위)을 맞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배경(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을 가진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 축제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화 되는 리치몬드 지역에 화합과 평화

를 촉진하고 한국의 세계적인 음식과 음악 등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동 교회가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Social Mission For Love and Justice) 프로그램의 하나인 이번 행사 이외에도 주 예수교회는 인종화합 합창제(Intercultural Music Festival), 노숙자 선교(카리타스, 면로공원 노숙자 점심봉사), 독거노인, 장애인 집수리봉사(Renew Crew) 등의 사역을 통해 리치몬드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다. 설립 이후 12년 동안 꾸준한 지역사회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주 예수교회는 지난 6월 유니온장로회신학교에서 수여하는 사회봉사상(Elinor Curry Award)을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 (기사제공: 주 예수교회)

이 축제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화 되는 리치몬드 지역에 화합과 평화

"캄보디아장로교회 이끌 목회자 양성"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 후원행사 LA, DC, 시애틀서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총장 전호진 목사)를 위한 후원회 행사가 LA와 워싱턴DC, 시애틀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10시 LA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조봉기 선교사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이성진 목사(신우세계선교회) 기도, 전호진 목사(캄보디아장로교 총장) 설교, 흥통일 목사 축

도로 진행됐다. 전 목사는 이사가 42:1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방의 복음자로 한국 교회가 선교에 전진해 영적 해방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캄보디아신학교 보고와 영상, 신학교 건축 경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캄보디아장로교 신학대학은 2004년 개혁주의장로교의 신앙과 조례, 정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캄보디아장로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아시아신학연맹(ATA) 인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이미 준비된 4학타르의 선교부지위에 강의실과 학생기숙사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camjangshin@hanmail.net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말씀과 캄보디아 장로회신학교를 소개하고 있는 전총장

동부교계 기사판

east

뉴욕KCTV 감경철 회장취임 감사예배

뉴욕기독교방송(KCTV, 사장 박용기 장로)이 감경철 장로 회장취임 감사예배를 11월 1일(화) 오후 7시 코리안아 대연회장(구 아리수)에서 드린다.

제 3회 바다위십 페스티벌

뉴욕한인청소년센터(위원장 양희철 목사)가 주최하는 제 3회 바다위십 페스티벌이 11월 26일(토) 오후 5시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린다.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 연합친목 체육대회

기독교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지방회장 이규연 목사) 연합친목 체육대회(준비위원장 풍아일랜드성결교회 황규복 장로)가 10월 16일(주) 오후 2시 롱아일랜드 커닝햄 파크(Picnic Area)에서 열린다.

아동부 전도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가 주일학교 아동부 전도사를 청빙한다.

뉴욕교협 양승호 회장후보 회비납부 시비

선관위, 체납 미납 공방 끝 투표로 미납 처리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선관위(위원장대행 현영갑 목사)가 뒤늦게 알려진 양승호 회장후보 회비 체

납과 관련, 지난 5일 오후 3시 교협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감사 2명(김병욱 목사, 최재복 장

“거룩하지만 위험한 성(性), 예방교육 필요” ‘목회자 성윤리 세미나’ 강사 송흥용 목사

뉴욕교협이 주최한 ‘목회자 성윤리 세미나’가 지난 7일 뉴욕비전교회(담임 김연규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송흥용 목사(교회)는 “교회 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함에도 남의 이야기인 양 취급돼 왔다”며 “성은 자연스럽고 거룩하지만(생명체) 위험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로)이 지난 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양 후보의 회비 체납은 이날 선관위 모임에서 미납으로 확정됐다.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선거세칙 제11조(자격) 1항에 의거 회비체납은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했으나 ‘회비체납’ 해석에 대해 2시간 여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5표, 기권 2표로 미납으로 결정됐다.

송 목사는 인간 행동변경의 문제인 선(boundary)이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교회지도자로서 건강한 관계유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성문제는 재발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후 치유를 받고 목회자를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특히 교회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계선인격장애자(boundary personality disorder)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예방법으로 신신체적 접촉 △상담사 문을 여는 등 안전장치 준비 △상담내용의 비밀 지키기 △상담자의 영적 심리적 준비 △수퍼맨 신드롬(목회자가 하나님이라고 착각) △감정의 전이 △3회 이상 같은 이슈로 상담하지 말 것 등을 충고했다.

송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윤리적 문제 △너(가해자인 목회자)는 누구냐 △당신(피해자, 여성)은 누구인가? △커뮤니티적 원인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예방법 △명심할 문제 △집단지원의 대처법 등에 대해 자신이 체험하거나 상담을 받았던 외국 교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 집단 차원(노회, 총회, 기독단체 등)에서의 대처법으로 성문화된 법률이 필요하며 중재자 화해가 아닌 조사, 재판(법법행위이므로)이 이행돼야 하고 참여 자격 조건 및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에게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가족, 전체 교인들도 치유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종명 부회장의 후보탈락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재등록 공고는 등록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 사전등록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교협은 각 언론에 해명서를 보내 감사 발표가 잘못된 것을 각 조항마다 지적했다.

교협 총회 5년 내 기록을 보면 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와 부회장 후보 2명이 회비체납 기록이 있다. 회장후

보 노기송 목사는 14년 동안 체납 기록이 없이 전부 납부했다. 한편 뉴욕교협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에 감사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김명옥 감사는 “1만 6천 여 달러의 적자임에도 1천여 달러 흑자보고를 했다”며 “지난 회기에서 2만7천 달러가 유입됐음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예산지출이 두서너개 없고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총회 48시간 전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종명 부회장의 후보탈락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재등록 공고는 등록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 사전등록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교협은 각 언론에 해명서를 보내 감사 발표가 잘못된 것을 각 조항마다 지적했다. (유원정 기자)



목회자성윤리 세미나에서 송흥용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뉴욕목사회 목회자세미나 오전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방곡한인연합교회 댄스뮤지컬의 한 장면



교회넷 후원회 조직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변화는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뉴욕목사회, 권 준 목사초청 목회자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김용의 목사)가 주최한 ‘권 준 목사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1일 뉴욕실로암장로교회(담임 김종대 목사)에서 열렸다. 권 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는 “부흥의 원칙과 목회자의 창조적 변화”라는 주제로 오전 오후로 나눠 강의했다.

권 목사는 변화에 대해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여야(변화)한다”며 “퇴보하는 교회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본질은 복음이며 그런 의미에서 변화란 복음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사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1)교회에 대한 비전 제시 2)비전의 가시화 3)양육의 이뤄져야 하는데 양육의 목표는 인격과 실력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강의를 “교회 부흥의 3대원칙”이란 제목으로 이어졌다.

(유원정 기자)

“Where Are You Jesus” 탈북소녀 이야기 나눔가뭇뭇 뉴욕지부 주최 방곡한인연합교회 댄스뮤지컬

나눔가뭇뭇 뉴욕지부(대표 김수태 목사)가 주최한 방곡한인연합교회 댄스뮤지컬 “Where Are You Jesus”가 지난 9일 저녁 컨트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 댄스뮤지컬은 ‘어느 탈북소녀의 시각을 통해 독재와 억압으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를 들여다봄으로써 오늘날 기독교의 시대적 사명을 확신’하고자 제작됐다. 김수태 목사는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며 방곡에서부터 뉴욕으로 달려온 교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관심과 후원, 기도를 당부했다. 안무 및 총감독이 서희주, 방곡한

인연합교회 교인 20명이 출연했다. 1신은 지혜가 은정에게 하나님을 알린다. 2신은 목숨을 건 탈출. 3신 지혜와 은정이 중국 술집에서 일하다. 4신 선택의 기로에 서다. 5신 아름다운 시절. 6신 은정의 탈출, 지혜의 죽음. 7신 지혜의 죽음 앞에 선 은정. 8신 자유의 나라로. 9신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로 나눠 북한생활, 탈출, 한국생활 등을 댄스로 표현했다. 이날 공연은 김수태 목사 사회로 어린양교회 찬양팀의 찬양, 기도 이희선 목사, 공연, 헌금기도 김희복 목사, 헌금찬양 세븐레베, 축도 이규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교회넷 후원회 조직감사예배 36후원교회 뉴욕일보 광고에

인터넷 언론 교회넷(www.churchus.net 대표 우병만 목사)이 지난 5일 낮 뉴욕진지에서 후원회 조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우병만 목사는 “지난 3년간 언론으로서 중립을 지키며 광고 없이 교회넷을 운영해왔다”며 “이제부터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아울러 기도와 격려, 체직을 통해 교회에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며 바로 뉘였다고 말했다. 예배는 김연규 목사 사회로 이만호 목사의 대표기도 후, 성경봉독 심재철 목사, 설교는 방지각 목사가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방 목사는 “성경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봉사의 원칙은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첫째, 방해를 극복해야

하며 둘째 협력을 해야 하고 셋째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넷째 사랑으로 하며 다섯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봉헌기도 이은수 목사, 축사 김원기 뉴욕교협회장 김용의 뉴욕목사회장, 격려사 김수태 목사 박효성 목사, 인사말 우병만 목사, 축도 이만규 목사, 식사기도 황경일 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이날 36개 후원교회 명단이 공개됐으며 이 후원교회들은 우병만 목사가 종교기자로 있는 뉴욕일보 광고란에 게재된다. 우 목사는 50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Advertisement for New York Kom Tang featuring a cow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24-hour open store.

Advertisement for Dynamic (다이나믹스) offering various items like towels and shirts with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True Friend (www.truefriend.us) featuring a testimonial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ames Song and Kerry Choi.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Advertisement for Yoo Travel (유 여행사) offering travel services and flight packages to Asia and Korea.

Advertisement for SBM (www.sbm.or.kr) featuring a testimonial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ministry.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

'복합문화 속의 목회리더십' 주제

남가주교협·이민신학연구소, 제3회 이민신학심포지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와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복합문화 속의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10일과 11일 양일간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열렸다.



제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에서 이학준 박사가 주제강연을 인도하고 있다

첫날 저녁 오상철 박사의 사회로 열린 심포지엄은 총현선교교회 국악팀(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와 레위남성합창단의 특송, 손상현 목사(두란노교회)의 기도, 민종기 박사와 이승만 박사(유니온장로교신학교 선교학교수, 미국NCC중경회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어 이학준 박사(폴리신학교 교수)가 '복합문화 속의 목회리더십'이란 주제로 주제 강연을 인도했다.

이 박사는 "미국에 관광객으로 방문한 자와 유학생으로 지낸 자, 박사 학위를 위해 백인교수 및 학생들과 열린 토론을 하며 학업을 하고 있는 자, 신학교 교직원으로 경험한 미국은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합 문화는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인 등 아시아

이들이 주류문화 속에서 맞이하는 건 인종적인 정체성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생각하지만 주류사회 진입 시 첫 번째 겪게 되는 장벽은 바로 인종적인 장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교회는 한시적 교회이다. 과거 네덜란드와 독일 등 이민교회들이 처음엔 그들의 언어를 가진 교회였지만 수많은 환경의 변화로 이민자 유입이 멈추게 됐고 현재 그들의 교회는 모두 영어권 교회가 됐다"며 "현재와 같이 미국의 경제 불황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미국의 이민정책은 자국민 우선정책이 될 것

이 박사는 "현재 이민한인교회의 경우 교육콘텐츠가 부실하다. 한인 교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모든 것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이민교회들은 다음세대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의 강연에 이어 이민목회 간담회로 이어졌는데 이동진 목사(CTS TV USA 방송위원, 그리스도인닷컴 발행인)의 사회로 박세현 목사(예수교회, 남가주교협 총무), 원성택 박사(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조현영 목사(큰빛교회)가 패널로 나와 이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째 날은 '복합문화의 이해', '복합 문화와 이민목회 리더십', '패널 디스커션' 등 3개의 트랙으로 나눠 강연이 진행됐으며 저녁시간에는 찬양 및 축제,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의 특별찬양 등으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 대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홈커밍데이에서 동문과 재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동문 주소록 발간 · 장학재단발족 기획 베데스다대학교총동문회 제8회 홈커밍데이 참가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요한 목사)는 장학금 기금마련을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베데스다 대학교와 공동으로 제8회 홈커밍데이를 Ralph B. Clark Regional Park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명상 장로(총무)는 "이번 동문행사를 통해 주소록 발간, 베데스다장학재단발족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데스다대학교 채플린 배현성 목사는 "해마다 홈커밍데이를 하고 있다. 베데스다 대학발전엔 큰 기폭제 역할을 동문들이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교 디자인학부 김은아 자매는 "이번 홈커밍데이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들이 단합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유아교육과 이문영 자매는 "홈커밍데이를 맞이해서 동문회 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재학생에게 격려와 충고

그리고 비전 등 희망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교 동문인 박정진 전도사(생수외교교회)는 "훌륭한 후배들 영성이 있는 후배들 만나 반가웠다. 우리 교계와 미래를 변화시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교 동문 공영식 목사(앤드루스순복음교회)는 "오랜만에 동문회 나오게 됐다. 동문 간 서로 이끌어주고 현장에 연결시키는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체육대회, 디너파티, CCM콘서트, 베데스다 장터, 회중찬양, 동문과 재학생과의 대화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저녁 8시에는 성령집회로 마무리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푸른나무 미주본부 발대식 순서를 맡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푸른나무' 미주본부 발대식

미주본부장에 오상철 이민신학 연구소장 위촉

'푸른나무' 미주본부 발대식이 10일 오후4시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열렸다. 푸른나무 미주본부는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디아스포라 한민족이 함께 새로운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뉴코리아 문화복지공동체 푸른나무(대표 곽수광 목사)의 미주본부이다.

한을 도와 나감으로 통일의 시기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상철 이민신학 연구소장을 푸른나무 미주본부장에 위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세호 목사(OC한미교회 담임, CRC한인교회협의회 총회장)가 기도했으며 어부들의찬양 중창단이 특송을, 민종기 목사(총현선교교회 담임, 남가주교협회장)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야2:10-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푸른나무 대표인 곽수광 목사가 푸른나무를 소개했으며 김인선 장로(푸른나무 사무총장)가 경과보고를, 신영순 선교사가 북한장애 인사역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푸른나무 고문, 미국NCC중경회장)와 정호영 장로(전 가든그로브부시장)가 축사했으며, 카마어린이 합창단이 축하를 불렀다. 이날 행사는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 25회 신인등단 시상식

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가 주최하는 제 25회 신인등단시상식 축하모임이 11월7일(월) 오후 6시30분 만리장성에서 열린다.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 당선 진영희(기다리면) △수필 당선 영그레이(어머니 우리 어머니) △소설 특별상 한구(천대의 사랑), 단편소설 고원상(황혼이혼)

▲문의: (213)249-0771

담임목사 청빙

설립 33주년을 맞는 벤츄리카운티장로교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 소속)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목사로 이민목회 경력 3년 이상이며 미국체류가 가능. 제출서류는 이력서, 사진, 목회비전서, 목사안수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2인 추천서와 최근 설교 2편을 준비해 11월4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805)746-1730

바이블선교교회 설립18주년 기념부흥집회

바이블선교교회(담임 김종언 목사) 설립 18주년기념 부흥집회가 '축복과 치유!'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장정원 목사(축복순복음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1(금) 오후 8시, 22일(토) 새벽 5시30분, 저녁 8시, 23일(주) 오후6시.

▲문의: (503)957-7939

LA 남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LA남성합창단(단장 유창호) 제 2회 정기연주회가 '성도여 다 함께'라는 주제로 23일(주) 오후 7시 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된다. 본 합창단 지휘 원영진, 피아노 오지혜, 주회정이며 소프라노 최정원 씨가 특별출연한다.

▲문의: (213)291-4422, (626)825-911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찬양집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강일용 목사)는 한국 컨티넨탈싱어즈를 초청, 10월 22일(토) 저녁 7시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In The Shadow of Thy Wing(주의 날개 아래)" 주제로 컨티넨탈싱어즈의 연중 사역팀인 Color가 집회를 인도하게 된다.

▲문의: www.hanarochurch.org / 626-912-6600



예배 후 가진 '전교인 운동회'에서 경기에 임하는 성도들과 응원단

나성소망교회 2일 이전 감사예배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사가 월서팍 초등학교(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강당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지난 2일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200여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드린 예배는 본 교회담임 김재율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김영모 목사 축사, 그레이스임 집사가 축하를 맡았다.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기념품과 함께 교회 로고가 새겨진 재할용 바

구니를 나누며 이전의 기쁨을 누렸다. 특히 이날 나는 재할용 바구니는 본 교회가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었다.

한편 감사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전교인 운동회를 열고 온 가족들의 심신을 단련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웹사이트 www.lahopecchurch.com (정리: 이성자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김항안 목사 초청 2012 목회 계획세미나

●일 시: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00 - 오후 3시 ●장 소: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Tel: 213-749-4500

3시간투자하시면 목사님의 목회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목회성공은 영성과 준비된 목회자의 몫입니다.

왜? 한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일까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는 6월 5일 '목회자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6월 첫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실시하고 목회자들의 영성회복과 목회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5,0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주최 | 한국교회정보센터 www.kcdc.net | 미주교회정보센터

신청문의: kcdc@choi.com / (213)268-2883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정 촉구

한기총, “기독교 부분 반영” 세 번째 건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서울 기준이 되는 '집필기준'에 대해 기독교 부분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본부장 이용규 목사)는 7일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위원장 이배웅)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역사교육과정 교과서 집필기준 한국사 영역'에 대해 기독교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는 지난 7월과 9월

에 이어 세 번째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역사교육과정 개정'과 '집필기준'은 전통종교 및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며 천주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기독교 영향이 큼에도 '기독교 배제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를 지적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공정회에 참석해 기독교 의견을 개진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역추위,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건의안을 발송하는 등 노력해왔다. 하지만 8월 발표된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역시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이번엔 재차 요청한 것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초안을 만들고 역추위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추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집필기준을 각각 따로 만들게 된다. 지금은 중학교 집필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본부 박명수(서울신대 교수) 전문위원장은 “과거 집필기준(표 참조)을 보면 개항 이후 종교 서술에 있어 특정 종교에 편향이 없도록 서술하라고 돼있다”며 “이는 겉으로는 공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서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장은 “진보적 사학자를 포함한 대다수 역사학자들조차 개항 이후 기독교가 근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며 “새로 만들어질 집필기준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공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후 '북한 성시화' 구체 전략 발표

10월 10-12일 서산서 국제성시화대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 김인중 목사·전용태 장로)가 북한 성시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10-12일 2박3일간 열리는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에서 국내외 성시화운동 지도자 및 성도들과 함께 통일 이후 진행될 북한 성시화 전략을 공유했다.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발표된 북한 성시화의 비전과 전략은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운동' '북한 구원을 위한 영적 도시 임양운동' '북한 성시화를 위한 개인통장 갖기운동' '통일 후 전문성을 갖고 북한동포 돕기' '북한 긴급구호운동 동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전략 가운데 두 가지가 기도운동이다.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운동'은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북한 구원과 나라, 민족 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김준곤 목사가 만든 '111 기도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기도 제목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받아볼 수 있다(twitter.com/111prayer).

'북한 구원을 위한 영적 도시 임

양운동' 또한 기도운동으로 진행된다. '영적 입양(Spiritual Adoption)'이란 의미의 '영친운동'으로 불린다. 이 운동은 국내외 도시와 북한의 도시를 연계해 기도해주는 것을 뜻한다. 가령 서울과 미주 지역 거주자들은 연계 도시인 평양을 위해 기도하는 식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통일 이전엔 담당할 연계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통일 이후엔 직접 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 재해를 입을 경우 연계 도시가 적극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도 외에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동포를 위해 매달 1000원을 예금하자는 '북한 성시화를 위한 개인통장 갖기운동'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북한 재건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통일 후 전문성을 갖고 북한동포 돕기'와 '북한 긴급구호운동 동참'은 북한 연계 도시에 각종 기술 전수와 구호 활동을 펼치자는 의미다.

“힘·지혜 아닌 그리스도 사랑으로 임하소서”

한기총, 2011 신임 교단장·단체장·총무 취임 감사예배

7일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호텔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김자연)가 주최한 '2011 신임교단장 단체장과 총무 취임 감사예배'에서 박종순(총신교회 원로) 한기총 명예회장은 “남탓 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자”고 강조했다.

박 명예회장은 지난 9개월간 지속됐던 한기총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생각 없이 돌을 던지고 있다”며 “다른 교단이나 교회, 단체를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건강하지 살펴보자”고 말했다. 그는 또 “나부터 돌아보면 한국교회 문제는 쉽게 풀린다”며 “한기총은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구인 만

큼 고통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기총 이외에 다른 기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런저런 일로 기존 조직을 무위로 돌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면 매년 부수고 다시 만드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해 해체 운동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예배는 69개 교단 19개 단체 소속 신임 총회장과 단체장, 총무 등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임 교단장과 단체장들이 신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축사는 한기총 명예회장이 맡았

다. 림인식(노장진교회 원로) 목사는 “우리는 지금 사랑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아가페 사랑이면 통한다”며 “총회장은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임 교단장인 이기창(예장합동 총회장은 “따뜻한 축복의 말씀은 영혼과 사역, 생활에 새기겠다”며 “한기총이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고 영혼 구원에 성공하고 한국교회에 오순절적 부흥을 이뤄내며 민족 통일의 중심 세력이 되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감사예배에 앞서 열린 임원회에서는 그동안 미뤄던 임원 발표와 신규가입 교단·단체 재인증 등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임원에는 대표회장을 포함 81명이 선출됐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교과서진화문제추진위원회(위원장 목사·예장백석)가 추가

돼 21개로 늘었다.

안건에는 다락방(전도총회) 영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장 개혁 측과 관련된 진정 건이 올라왔다. 김자연 대표회장은 “오늘 한 신학교 교수가 다락방을 영업한 교단을 한기총 회원으로 받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한기총은 다락방을 받은 적이 없으며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진정 건은 질서확립위원회(김용도 목사)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길 대표회장은 상임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객관적 인물을 선택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다락방 영입 예장개혁 탈퇴시켜야”

11개 교단 총무·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 갖고 성명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등 11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이대위원장)들이 전도총회(다락방)를 영입한 예장 개혁 총회(총회장 조경삼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11개 교단 총무(사무총장) 및 이대위원장들은 5일 서울 대치동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이단·사이비 대응, 교단 모인 지침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예장 개혁(조경삼 목사 측)의 다락방 전도총회(류광수씨) 영입에 대한 한국교회 11개 교단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장 성명서'란 제목의 성명은 11개 교단 이대위원장의 입장을 담았다. 성명에는 류광수씨(다락방 전도총회)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로부터 이단, 사이비성 등으로 규정했다는 점과 한기총이 다락방을 영입한 예장 개혁(조경삼 목사 측)의 가입을 원천무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등이 들어있다. 이밖에 11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은 향후 교단 신학

자들이 류광수씨의 사상을 '문제 없다'고 결론내린 문제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뒤 각 교단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도총회는 1995년과 97년 예장 고신에서 '이단성 있는 불건전운동', 96년 예장 통합에서 '사이비성', 96년 예장 합동에서 '이단' 등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 마지막까지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성명서 채택과 발표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예장 통합 최삼경 이대위원장은 “상황이 변해 이들이 버젓이 한기총에 들어가 있다”며 “한기총 문제가 급하거나 이 모임에서 (이대위원장으로) 주어진 권위만큼의 성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철원 이대위원장 또한 “이 자리에서 한기총 입장을 밝히는 등의 강력한 성명이 나와야 한다”며 “이단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한기총 회원 퇴출 등 권고사항이 성명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가 “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문제는 행정적 문제가 아닌 교리 문제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한기총이 이단 정죄의 의의가 없다”며 성명 발표를 종용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모임 후 지난 7월 예장 고신 총회회관에서 결의했던 '전도총회(류광수)에 대한 한국교회 11개 교단 성명'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문구를 일부 수정해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기성 김철원, 기독교한국침례회 조원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동훈, 예장 고려 이현상, 예장 고신 박성실, 예장 대신 임병무, 예장 백석 김학수, 예장 통합 최삼경, 예장 합동 박호근, 예장 합신 최재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김기현 이대위원장 명의로 작성됐다.

한편 조경삼 목사를 반대하는 예장 개혁(총회장 장세일 목사)측은 이날 11개 교단 이대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유인물을 돌리며 각 교단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들은 “한국 주요 교단이 이렇게 나서서 모임을 가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며 “교권싸움이 아닌 진리문제이자 한국교회 전체 사안이니 만큼 명명백백하게 가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법원, 1년여 소송 최종 판결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저작권료 청구권 없다”

1년 넘게 끌어온 찬송가 저작권료 청구 소송이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재단법인 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서정배 목사)의 패소로 최종 결론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단법인 공회 측이 제기한 저작권료 청구 관련 상고에 대해 지난달 29일 '심리불충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재단법인 공회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찬송가 저작권료 청구 항소심에서 '재단법인에 저작권료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는 재단법인 공회가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공동회장 김삼봉 윤기원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찬송가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측이 아니라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판결로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공회로부터 찬송가의 저작권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찬송가공회 측은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합동총회와 예장 통합 총회가 재단법인 공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조사위원회를 구성기로 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단법인 공회의 존립 근거를 없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찬송가공회 측은 “재단법인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 판결은 15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찬송가 전체의 저작권이 문제가 된 것임을 잘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공회 측은 여전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 5명의 10여곡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단법인 공회의 박노원 총무는 7일 “여전히 645곡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편집권 역시 재단법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 없음' 판결로 재단법인 공회의 설립 근거가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총무는 “이미 재단법인이라는 공의 단체가 만들어진 이상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원'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기각 판결 배경은 백 직무대행이 신청한 '임시총회'가 감리교 헌법외 교리와장정에 없을 뿐 아니라 감리교 내 다양한 그룹이 제출한 총회 반대 진정서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백 직무대행은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복원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6일 법원에 총회 청원을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은 지난 5일 백 직무대행을 불러 총회개최에 관한 견해를 들은 뒤 곧바로 나온 것이다.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감리교 백 직무대행 측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내부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법원에서 받아낼 예정이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백 직무대행 등 감리교 본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10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개최를 기대했던 김국도 목사측도 “아직 논쟁하기가 힘들다. 논의해서 곧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전감목) 측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전감목이 꾸준히 제기해온 것처럼 감리교 내부 역량이 의한 감리교 개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기에 때문이다. 전감목 측은 “드디어 감리교인의 주체적인 역량을 통해 감리교를 개혁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법원을 비롯한) 외부가 아닌 감리회 내부의 총의에 의한 개혁과 정상화만이 감리교 사태 해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해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2012년 달력·다이어리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다이어리
맞춤제작
최저가격 보장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샤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미중동부 기가워킹! 특별혜택!

엘리성구사
에히드수정광대상
EVID CRISTAL PULIT
LED LAMP를 설치함 또는
광안정 유리판의 교체
100만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풀업가운, 성가대
연금위원, 드레스·경쟁양복

최저가격 보장
수정광대상 001만 특별
New Design-기타를 특별주문
대형에수정광대상(합본)
사방남향용대상
대형수정광대상
대형수정광대상
대형수정광대상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사평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044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인방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파키스탄

빈라덴 사망 이후 현 정부와 연정을 이뤘던 MQM 탈퇴가 견장을 수 없는 종족 종교 간의 갈등이 총성으로 변하고 미르푸르가스 지역 약 4천여 마을이 흉수에 잠겨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고통의 정비가 동역자들을 통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카라치 지역 크리스천 의대생 중심 제자와 사업을 하려 합니다. 크리스천 의과대학생을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제자와를 위한 장학술을 C.C.C팀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도중에 있습니다. 기초 자금이 좀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지만 아버님이 원하

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진행하기 위하여 기도중에 있습니다. 기초 자금 약 2만불(자동차 포함) 2) 새로운 지역에 VOC를 통한 CDP사업을 하기 원합니다. 놀랍게 일꾼도 모르는 사이 예수 기업이 초기 셋팅 비용 약 2,750불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가장 아버님 기뻐하시는 지역에 아버님의 비전을 세워갈 여린이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심장을 가진 스텝이 준비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위해 1) 언어훈련: 하늘의 지혜를 부여주셔서 현지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2) 사역: 새 사업을 위해 아버님의 영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아버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경험이나 철학,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3) 영적: 언제나 영적전투에 임하도록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전신갑옷을 입고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통해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이 되게 하소서... 4) 국제 기가대책과 협력: 파송이 잘 진행되어 VOC와 CDP사업이 잘 협력될 수 있도록. 5) 여행: 약 2주간을 거쳐 미국 동부여행(14-18일 애틀란타,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19-25일 볼티모어 - 뉴저지 - 필라델피아) 25일경 달라스로 돌아와 11월 2일 현장으로 다시 출국할 것입니다. 여행길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불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표크스탄 현장에서 아버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무릎을 꿇는 강봉학 선생님 가정 구원을 위해 지난 8월 캐나다 유충식 선배님의 배려와 도움으로 1차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 번 복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버님의 영이 그 분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함께 집중적인 중보를 요청 드립니다(부모님 강대흥 /양정자, 동생 강봉균, 김나미 사모님 언니).

장기라와 빼빼 기도처소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 사귀기 영적으로 충만하여 아버님의 뜻을 따라 기도처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동역자 이자스가 영의 사람으로 잘 동역해 줄 수 있도록...

나담을 위해



천막안의 아이들

F대학 수학교수 나담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사탄에게 목이지 않도록... 강선님이 성령 충만하여 나담을 영적으로 압제하며,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위해... 하이드라바드에 진행되고 있는 CDP 사역 메니저먼트가 현지 리더에게 지혜롭게 넘겨지고, 뒤에서 협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탄이 방해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이드라바드 CDP(Children Develop Program) 사업 이양을

이메일: kmc1955@hanmail.net 바나바김 선교사



선교지 편지

우즈베키스탄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만 버지니아 집에 두고, 2주간의 일정으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받는 일이나 임과국정 모두가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다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우즈베키스탄 선교의 값진 열매로 "두 분의 목사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안수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료나와 비짜 전도사님의 목사안수식이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에 S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현직인 목사님들로 구성된 노회를 중심으로 저도 함께 각오하며(?) 안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축하 속에 다행도 무사하게 잘 끝이났습니다.

2. 에버그린 국제학교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려문화협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명실 공히 S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현직인 목사님이 세워지게 된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료나 목사님 가정은 S교회를 섬기게 되고, 비짜 목사님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 K민족을

지난 방학기간 동안 잠시 다른 건물로 이사를 했던 학교는 다시 현재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안

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토록 소망했던 교육면허증도 받은 상황에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학교로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 마침 열린 이사회에 초청되어 상황을 청취해보니 시급히 필요한 교장선생님과 4-5분의 교사도 확보하는 일에 SEED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이 학교가 안전하게 가야만 안정적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버지니아 SEED 본부 사역을 위해서...

저는 SEED International의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장으로서 해당 국가 여러 소속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아울러 SEED USA 본부(동부)선교사로서 동원, 교육,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걸음을 잘 떼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8월 28일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한복판 우즈베키스탄 방대식/박형영 선교사 가정 드림

코스타리카

저희들이 선교할 코스타리카에

갈 도착했습니다. 지금 묵고 있는 곳은 임시 처소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제야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반 동안 베네주엘라에 있으면서 베네주엘라 한인침례교회와 그곳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주일 설교와 목장 모임에 가서 말씀과 선교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선교 비전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지만 얼마씩이라도 후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느끼게 했습니다. 베네주엘라에서 이곳 코스타리카로 들어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저희 가족을 못 들어오게 하는지요. 공항에서 가는 곳마다 검문과 가방 뒤지기는 물론,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표를 검사하며 원래 출발한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코스타리카로 들여보내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지를 았나, 문제를 해결하니 비행기 탑승 10분전까지 공항 수화물 취급하는 곳으로 불러 내려가 약 1시간 이상을 모든 짐들을 다 뒤집어엎어서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심지어는 아내의 화장품까지도 손가락으로 짚어서 냄새를 맡아보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당했습니다.

책들도 하나하나 다 열어서 책

갈피를 넘겨가며 냄새를 맡고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미 여러 곳을 다녀왔지만 이처럼 죄인취급당하며 온갖 수모를 당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악한 세력이 수시로 공격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전부터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든 상황은 잘 마무리되어 이곳에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 가족의 신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 지내는 곳은 임시 처소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저렴한 좋은 집을 구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 래야 아이들의 학교에 빨리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학교 등록이 다소 늦었지만 하루빨리 집을 찾아 나가야 그곳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곳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생각했던 월 500달러 미만의 집을 찾을 수가 없고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제 사역지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었다면 우범지역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위하여 자동차를 빨리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영주권이 아무 문제없이 잘 연장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자동차를 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학교에 등록이 잘 될 수 있도록 김도경, 해린 선교사 드림. gabrielkim1004@gmail.com



한국 핸드폰 빌려주세요 702.812.4770 Kim Wray. \$3.00 a day, \$21.99/wk. 39¢ 공짜!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교/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회명: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방입니다. 2717 W. Olympic Blvd., #207 Los Angeles CA 90009. TEL: 818.982.4236 Fax: 818.982-1124. www.lifebook.co.kr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젊은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턴오프 무료매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836-1077 / (213)254-700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지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선교소식

알제리 정부 '개신교회 인정' 결정

지난 5월 알제리에서는 교회들이 폐쇄되고 기독교인이 신성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제리 개신교 교단(the Protestant Church of Algeria)의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폐쇄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주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려 왔다.

크림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알제리 개신 교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반기며 알제리 개신교단이 주 정부의 행정 명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후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알제리 개신교 단에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제 27개의 알제리 개신교단의 교회들과 약 12개의 독립 교회들이 정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크림 회장은 말했다.

4년 마다 내무부가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갱신하여야 한다.

알제리의 소수 종교 단체들이 겪어 왔던 가장 큰 장애물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 단체의 예배를 규제하는 법안이었다.

알제리 개신교단의 크림 회장은 기독교인들이 이 법안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정부 승인 결정으로 알제리 개신교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CD를 이웃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받은 알제리 기독교인 시아그 크리모(Siagh Krimo)의 재판을 예외로 시하고 있다.

크리모는 항소를 했으며 2011년 9월 29일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2011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에 의하면, 알제리 전체 인구 3,542만 명의 97.3%인 3,446만 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 규모는 10만 명 이하로 총인구의 0.3% 정도이다.

소강석 목사 국민훈장 동백장 한·미 관계 발전·미주동포 권익신장 공로

[미션라이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 소강석(49) 목사가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소 목사는 한·미 관계 발전과 미주지역 동포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여식은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리토리움에서 열렸다. 소 목사는 이날 '역사적인 책임의식과 사회적 나눔 실천, 민간외교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귀한 훈장까지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새에덴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시대적 사명이며, 달란트였기에 당연히 할 도리라고 생각해 왔다"고 겸손해했다.

소 목사는 1988년 조그마한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뒤 등록교인 3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 '맹발의 소명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2007년부터는 민간 종교단체 최후호를 기획, 올해까지 5회째 주최했다.

소 목사는 "앞으로도 사랑과 평화의 꽃씨를 뿌리는 피스메이커로 700만 재외동포의 위상 강화와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물동정

권태진 목사 LBU 명예박사학위 LBU 처음...목회통해 학술문화공헌 인정



왼쪽이 권태진목사

계 명예철학박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BU는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38년의 역사를 가진 보수적인 학교로 세계 곳곳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명망 있는 학교다.

수의 인도로 웨버 총장이 로마서 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종"에 대해 설교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오석교 합심교

업을 통해 받는 박사학위가 아닌 수십 년의 목회일생을 통해 학술과 문화에 뛰어난 공헌을 한 분에게 수여되는 것이며, 권태진 목사가 한국인으로는 LBU가 처음으로 수여하는 명예철학박사학위"라고 밝혔다.

신복운 합심명예총장, 김강환 극동방송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영상 축사를 했고, 성주진 합심총장, 김성수 고신대총장, 안만수 화평교회 원로목사, 최낙중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가 축사했다.

성주진 총장은 축사에서 권 목사의 목회를 권 목사의 시 "반보"에서 따온 '반보목회'라고 명하고 "성도들이 한보로 결을 수 없을 때 목회자가 반보로 함께 걸으면 한보로 걷게 해주고 나아가 담을질할 수 있게 한 목회"라고 전했다.

김성수 총장은 "군포제일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여 성도들은 행복하고, 지역주민들은 함께 서 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교회서 자살폭탄테러 발생

인도네시아의 자바(Java) 섬에 위치한 솔로(Solo)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최소 2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탄이 터진 장소는 10번째 벨렘복음 교회(Tenth Bethel Gospel Church)의 입구이며, 테러범은 지난 달 25일 주일예배가 끝난 후 폭탄을 터뜨렸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폭발 강도가 낮은 폭탄을 자신의 배에 붙이고 교회에 들어갔으며, 주일예배를 드리는 신

도들과 섞여 있었고, 예배가 끝나자 교회 인들과 함께 나오면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번 테러 사건은 알카에다와 연관되어 있으며 지난 2002년 발리(Bali) 나이트 클럽 폭탄 테러를 일으켜 202명을 사망하게 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단체 자마아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의 요원이 아닌 단독으로 벌어진 테러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벨렘복음교회의 신도들은 범인의 수상한 동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신도는 그가 신도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래 동안 종교적 관용을 견지해온 세속 국가였으나 최근 소규모 급진주의자들이 폭력과 테러 사건을 자행해 왔다.

하지만 유대요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비난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범인 배후에 있는 세력을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종교와 민족을 떠나 이 사건을 범죄 사건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2억 3,252만 명 중 이슬람은 80.3%로 8,673만 명이며, 기독교인 비율은 15.8%로 규모는 3,685만 명에 이른다.

이단 대처 사이트 '크리스천 Q&A' 인기

"사이비 집단, 교회 들어오면 주거침입... 3년이하 징역"

에바나 업무 중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에 들어와 포교활동을 펼치는 이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해도 무방하다는 법률 의견이 제시됐다.

“요즘 이단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면서 교회 교역자나 성도들과 인정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은 뭘까요?” 지난 달 한 성도가 '크리스천 Q&A'에 올린 질문이다. 그러자 얼마 후 답변이 올라왔다. “이단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 포교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이트 전문위원인 임 변호사가 올린 글이다.

도 이단들의 핵심 교리, 안티기독교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이단을 비롯해 기독교 교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신앙 성장에도 유익하고 이단·사이비에 빠질 확률도 낮을 것 같아 기뻐했다”고 설명했다.



365Revival.com advertisement for CD/DVD duplication services. Features include: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받으면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8)



현실적인 이슈 / 크리스천 리더십의 개발과 훈련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 중 그들이 이 사회에서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슈(Issue of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교육하는 일의 중요성과,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를 고취시키고 계발시키고 훈련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5단계 소그룹 리더십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5 단계 중에서 1단계(소명훈련)와 2단계(신앙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내면화) 그리고 3단계(소통을 위한 폭넓은 식견의 함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5단계 소그룹 리더십 교육"의 그 네 번째 단계는 우리 친구들이 앞선 단계들에서 익힌 바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그들의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줄 다양한 리더십의 기술들을 획득하도록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단계에서 훈련시키고자 목표하는 리더십의 기술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기본적인 덕목들-예를 들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고 사랑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겸손한 섬김의 자세, 리더로서의 자각,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관심, 변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해와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넓고 균형있게 아우

모르는 부분들을 남에게 물어보는 일을 아주 아주 잘 할 줄 아는 것이 훌륭한 리더십이다. 이 일을 잘하려면 모르는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resource person) 어디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resources)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루트 즉 네트워크(networks)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네트워크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이나 미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역자 스태프가 그들에게 그 해당 정보를 줄 수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러한 사람과 정보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임의 기술"이란 리더십을 수행하는 자가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도움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리더십이란 혼자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수행하고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리더들로 세우고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권리와 권위 등을 분산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특정 분야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임의 기술"이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한 사람 한사람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일과 그들을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그들이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을 가지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하면서 말

네트워킹과 위임 기술은 모두 타인과 관계맺음에 있어 전체 조직을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 갖도록 훈련시켜야

를 수 있는 통전성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이러한 덕목들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칭의 기술, 멘토링의 기술, 네트워킹 기술, 의사소통의 기술, 갈등상황 대처 기술, 프레젠테이션 기술, 위임의 기술, 그리고 여타의 행정적인 기술 등 말입니다.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다른 기술들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충분한 논의가 되어왔으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굳이 오늘 여기서 다시 논의 할 필요가 없을 듯 하지만 "네트워킹의 기술"과 "위임의 기술"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맺음"이라는 화두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리더십이란 것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로부터의 의미 있는 도움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킹의 기술"이란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자가 조직 외에서 오는 도움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한 리더가 책임을 지고 보살피야 할 부분들은 거의 무한적으로 다양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따라서 참된 리더는 타인들에게 배우는 일에 개방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단기간의 소그룹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든 기술들을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훈련에서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수준을 잘 파악한 후 교육의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요구되는 기술들의 종류를 소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술들을 획득하는 일이 반은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함양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효과적인 방법을 전수하고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일과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개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개별 훈련 상황에 대해서는 사역자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팔로업을 해야겠지요. 우리 친구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의 기술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도 연계해 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처럼 다양한 스킬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판단되는 한두 가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 즉 이 네 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 그 선택된 하나의 기술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그 중요성을 내면화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해보는 것을 병행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라 봅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올바른 비판 (마7:1-6)

1절,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본뜻은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비판이든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른 판단과 비판력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귀중하고 필수적인 신앙인의 조건입니다(고전2:12-14). 주님도 양의 옷을 입고 늑대 같은 거짓된 자들을 잘 판단할 것을 강조하셨고(마7:15)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것도 가르쳐주셨습니다(마23:23-28). 성도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신과 교회를 성장시키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앙의 방패입니다.

구하라 (마7:7-11)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도 많지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며 그 특권을 묵히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는 성도는 자비로 빠져 있다는 증거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해결능력이 없는 무

능력자로 여기는 병든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좁은 문 (마7:12-15)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좁은 문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외적으로 너무 보잘 것 없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신배경,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 그러나 외적 조건보다 메시아 되심과 천국권세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만 그분의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마13:14). 훗날 심판 날

에 넓은 길로 다녔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의도입니다(고전1:26-30). 두 번째는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쉽고 단순해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한 죄수의 흘린 피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준다는 진리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한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만 가능해지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열매로 알리라 (마7:16-20)

본문은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파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그 배경을 중시합니다(겔1:27과 꽃). 그러나 성도의 초점은 열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모나 학벌, 신앙연륜이나 사회적 위치보다 그 사람 신앙인격의 열매, 즉 속사람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저희는 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

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유1:12). 거짓된 자들의 미혹을 받아 그 마수에 걸리면 지금까지 주를 믿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거짓된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실천 신앙 (마7:21-24)

21절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곧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롬10:13). 그러나 또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6:46)고 질책하십니다. 지, 정으로만 주

님을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무효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롬2:13).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도로 만드는 비결이며,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진위 (마7:25-29)

언제 참 신앙인의 신앙의 진위가 나타나는가? 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25절)하는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의 한 단과 시련이 닥칠 때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오히려 거짓 신앙인들이 모양내는 일은 더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삶속에 마음에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분색을 드러냅니다. 자기희생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의 핑계를 댈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우리 부족함을 채우고 성금 같은 믿음을 보이기위해 베푸시는 고난과 시험을 잘 견디시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칼럼

(5면에서 계속)

그리고 여덟 번째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계성에 의한 교육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명령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며 선교의 내적, 외적 대상을 발견케 하고 실제적으로 선교 활동에 참여케 함으로 영적 도전을 체험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방약처럼 충격요법으로서만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팔로워(Follow up)이 필요합니다. 선교에 대한 동기와 사명이 무엇이며 주님의 심정을 체험케 하고 계속적인 선교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

고 단기선교만이 아니라 도시선교나 문화선교 또는 의료선교 등 지속적인 선교활동을 통해 평생 선교가 생활화 되도록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즉 무령교회를 포함하여 지상의 유행 교회 안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시화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현장을 체험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훈련을 통해 천국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Disciple Maker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교회교육의 커리큘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성에 의한 주일 학교 교육과정 세우기의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교회력에 의한 연간 교육과정의 예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학습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학교 단위학습지도안 작성과 자료 투입, 학습단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교사의 역할과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225-7776, FAX: (02)225-829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재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31)277-8794, FAX: (031)277-8794 군포시 관문동 470-10</p>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2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31)482-0900, FAX: (031)482-3779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49-4 (131-221)</p>	<p>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TEL: (031)277-8794, FAX: (031)277-8299 김포시 중앙동 349-4 (131-221)</p>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주일 5부예배: 오후 8:30 TEL: (02)272-8418, FAX: (02)272-4834 300-170 광주시 서구 관음동 330-1번지</p>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TEL: (031)272-8418, FAX: (031)272-4834 2-10-9 Ocho Street, Tokyo, Japan</p>	<p>돈돈교회 담임목사: 정창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후 11: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 (031)277-8299, FAX: (031)277-8299 49410-0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4670-1</p>
<p>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8:00PM TEL: 39-66-687-3664, FAX: 39-66-687-3664 39-66-333-1754, 주일 예배: 오전 11:00 VIA DEL MONTICELLI 32-50 00196 ROMA, Italy</p>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상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4:3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 TEL: (02)762-8279, FAX: (02)762-8279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29-3 (134-033)</p>	<p>사예연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762-8279, FAX: (02)762-82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29-3 (134-033)</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권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10:00PM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경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TEL: (02)762-8279, FAX: (02)762-8279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승풍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762-8279, FAX: (02)762-8279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762-8279, FAX: (02)762-82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29-3 (134-033)</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미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11:0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10:00PM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762-8279, FAX: (02)762-8279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창도교회 담임목사: 최승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후 10:00 주일 7부예배: 오후 8:30 TEL: (043)772-8181, FAX: (043)772-8181 381-03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흥동 730-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승준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7-640-9200, FAX: (02)7-640-9200 서울시 중랑구 중랑동 339-4 (134-033)</p>



핍박이 늘어가 마시마코회 의 지도자 양성 (하)



노봉린 목사
(Th.D. 하와이신학교 선교학 교수)

II. 21세기 지도자양성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방향

지난 40년간의 신학교육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아시아 국가들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 중동지역, 북아프리카에 있는 55개 이슬람국가들은 그 나라의 소수 기독교인에게 차별대우와 핍박을 가하며 이슬람국가에서 기독교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사용하여 기독교인을 학살하며 위협하므로 교인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인도와 네팔 같은 힌두교 국가와 동남아시아의 불교국가,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의 공산국가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핍박의 정도가 다른 압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 30년간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대학원 레벨(M.Div., Th.M., Ph.D.)의 프로그램을 많이 창설하였다.

ATA에서 1984년 창설한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GST)는 4개 학위(Ph.D., Ed.D., Th.M., D.Min.)를 수여하며 현재 AGST-Japan, AGST-Philippines, AGST-Singapore/Malaysia/Thailand, AGST-India를 통하여 수 백명의 아시아 신학자를 배출하였다. 앞으로 아시아교회가 북미와 유럽의 신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 내에서 만족한 교회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3. 현재 아시아에서 북미와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시아의 1,300개가 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실정은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도 신학교에서 교편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 언

어로 출판된 신학서적도 많이 늘어났다. 아시아 신학자들이 쓴 책이나 영어로 부터 번역된 신학서적이 마련되어 있다. ATA가 출판하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Asian Bible Commentaries도 중요한 성경주석이다.

4. 1960년대부터 약 30년간 아시아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인본주의 신학교 재정난으로 급속도로 쇠퇴해졌음을 볼 수 있다.

WCC의 재정을 주로 맡았던 독

특하여 다른 아시아교회에서 파송한 아시아 선교사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양 선교사보다도 원주민으로부터 더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6. 현재 교육방법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결과 교육방법이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다.

21세기 과학과 기술시대를 맞이하여 신학교육도 인터넷과 다양한 영상신학 방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특별히

루며 신학교육도 반 기독교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한국 2.일본 3.대만 4.홍콩 5.싱가포르 6.필리핀 7.캄보디아

B. 심한 핍박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들(Category B Nations)

정부와 종교 극단주의자의 반 기독교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테러와 폭동으로 기독교인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심한 핍박은 초대교회 시대 카타콤 기독교

육 시키자”(Train Asians in Asia)라는 관념을 갖고 계속 전임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양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2. 평신도 제자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연장신학(TEE),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 다른 형태의 신학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사랑의교회의 평신도를 위한 “제자훈련”은 한국에만 아니라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3. 일반사회에 문제들이(이혼, 낙태, 동성연애, 안락사, 성전환 등)를 다루는 신학교육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19-20세기에 성했던 인본주의 서양신학과 비 성서적인 아시아신학은 아시아 상황에 맞지 아니하므로 약화시켜야한다.

4. 지구촌시대의 신학교육은 양방면의 지도자양성을 포함한 지구촌 신학교육이 되어야 한다.

첫째로 각 나라의 저명한 신학교나 기독교대학은 외국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설해야한다. 한국의 아시아연합신

출할 수 있어야 한다. 1984년에 창설된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AGST)는 현재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4개의 최고 신학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앞으로 AGST-Chinese, AGST-Korea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7. 교회성장 폭발을 이루고 있는 중국교회는 앞으로 20년간 교회지도자 양성에 특히 힘써야 하며 태국(한국, 필리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교회와 신학교는 이 지도자양성에 동참해야 한다. 21개 삼자교회 신학교와 수백 개의 소규모 가정교회 신학교를 통한 지도자양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중국에 종교자유가 허락될 때 수백 개의 신학교가 설립되는데 이에 대한 교회지도자 양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8. ATA는 계속 각국의 복음주의 신학회(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를 강화시키며 신학교들이 그 나라와 아시아에 있는 다른 신학교들과 긴밀한 협조와 친교를 도모해야 한다. 국제신학교육연맹(International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IETE)과도 연결을 맺고 세계적인 시야에서 신학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9. 아시아의 더 많은 신학교들이 ATA의 인준(Accreditation)을 받아 신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타국의 신학교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ATA와 그 나라의 교육부에서 인준을 받은 신학교들이 ATA에 소극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9개 신학교가 ATA와 교육부의 인준을 받았는데 대다수는 ATA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 최고로 발전된 한국 신학교육은 ATA를 통하여 아시아의 신학교와 연결을 맺으며 아시아복음화를 위하여 같이 동참해야 한다. 한국의 신학교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그 우물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활동을 전개해야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10. 아시아 신학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시아교회를 강화시키며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계선교의 대명령을 이루기 위한 선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선교”가 아시아의 1,300개 신학교의 핵심적인 관심이 되어야하며 아시아 인구 4억 가운데 비기독교인(95%)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복음주의신학교의 질적 양적 향상, 인터넷 통한 글로벌 신학교육 가능 서구교회 에큐메니칼운동 축소로 복음주의 성장, 지도자양성 10계명 제안

일(루터교), 영국(성공회), 미국(NCC) 교단들이 지난 30년간 상당한 교인감소를 경험하면서 WCC에 보내는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결과로 에큐메니칼 운동과 큰 교단 신학교 운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와 신학교는 계속 성장을 이루었고 아시아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아시아교회에 교회지도자 양성시대가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유럽교회와 북미교회가 계속 약화되면서 이에 따라 서양선교사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고 그들의 영향력도 많이 축소되었다.

아시아교회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네비우스 선교사의 삼자원리(자치, 자급, 자전)를 받아들여 교회성장상을 이루게 된 것이다. 21세기 기독교의 중심지는 지구촌 북쪽에서 지구촌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세계 기독교인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는 유럽과 북미에 유하지 않고 제3세(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를 비

평신도 제자훈련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촌시대가 다가왔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 학업, 정부관계, 이민, 관광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 지도자 양성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신학교육은 전통적 신학교육이라는 벽 내에서만 제한된 신학교육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III. 종교자유에 의한 아시아의 3개 카테고리 국가들

아시아의 35개 정부가 종교자유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수의 기독교인의 자유를 용납하는 정도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필자는 일반적으로 종교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 나눈다.

A. 종교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들(Category A Nations)
아시아의 소수의 국가들은 종교자유를 허락하므로 교회성장도 이

인들과 같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상황이 21세기에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이슬람 국가들: 중동지역, 중앙아시아(7개국), 특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북 아프리카 국가들

2. 공산주의 국가들: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부탄

C. 부분적 종교자유와 핍박정책을 쓰는 국가들(Category C Nations)

정부의 기본적 종교정책은 반 기독교적이거나 종교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나 교회에 압력과 핍박을 가하여 교회활동과 신학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나라들이다.

1. 이슬람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2. 힌두교 국가들: 인도, 네팔
3. 불교 국가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리아

IV. 21세기 아시아교회 지도자 양성의 10계명

1. “아시아인은 아시아에서 교

학대학(ACTS)나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 좋은 예이다.

둘째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자국 선교사 계속교육과 평신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예를 들어 ACTS는 선교지에 190명의 선교사 신학생이 있고 장로교(합동)의 GMS선교사의 70명이 신학교육을 선교지에서 받고 있다.

5. 핍박이 심한 국가들(Category B)은 “핍박 속에 교회지도자 양성”의 관념을 갖고 전통적 신학교육보다 소규모의 다양한 연장신학을 개발시켜야한다. 이러한 지도자양성은 그 나라와 타국의 신학교와 긴밀한 연결을 맺고 새로운 방법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해야한다.

6. ATA는 최고 신학학위(Ph.D., Ed.D., Th.M., D.Min.)를 수여할 수 있는 Asia Open University를 창설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교역자와 신학자를 배

www.chungang.org.ar

담임목사청빙공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중남미노회 소속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50세 이상 목회경력 5년 이상(합동)
- 한국총신대학원 졸업자
- 아르헨티나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 대학, 대학원졸업증명서
- 목사안수증명서
- 현 소속 증명서
- 설교 Tape, CD, DVD 등 2편
- 2분의 목사 추천서 (추천자 사인과 밀봉 된 것)
- 이력서(사진포함)
- 목회비전

접수마감일 2011년 10월 31일 까지

서류제출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아르헨티나중앙교회
CASTANARES 1435. Cap. Fed. Buenos Aires, Argentina (CP1406)
TEL. (5411)4921-9395 / 0509, E-mail: carla7030@hotmail.co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